

바다는 또 하나의 영토

해외 수산 자원 확보는 한국원양산업협회가 앞장서겠습니다.



KOFA 이런 일을 합니다

- ▶ 해외수산 자원 개발 및 생산, 수출 지원
- ▶ 주요 연안국과의 입어교섭 및 입어약정 체결 지원
- ▶ 원양산업(원양어업, 합작어업, 운반, 가공, 유통, 양식업)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촉진
- ▶ 원양산업 통계 작성 및 관리
- ▶ 원양수산물 소비촉진 등 원양산업 홍보
- ▶ 원양산업 경영 개선을 위한 지도 및 관리
- ▶ 해외수산협력센터 운영

특수
법인 한국원양산업협회
Korea Overseas Fisheries Association



원양산업

제 1170 호

(2024년 6월 15일 발간)

창간: 1972년 8월 1일

등록일자: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라-9183호 / 월간발행(비매품)

Contents



협회소식

- 협회 60주년 기념 회장단 간담회 개최 / 4
- 2024 서울국제수산물전시회 참석 / 5
- 제29회 바다의 날 기념식 참석 / 6
- 포클랜드 오징어 경제성분석 용역사 업무협의회 추진 / 6
- 해수부, '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정 / 7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해양수산물야 설명회' 참석 / 7
- 원양어업 제2도약 위한 대책 절실 / 8



명예해양수산물 리포트

- 명예해양수산물 리포트 / 10



이달의 요리

- 코다리 강정 / 14



해외수산물정보

■ 국제유가 동향

- 6월 싱가포르 MGO 가격, 평균 700달러 / 15

■ 참치어업 동향

- 중서부태평양 4월 선망 어획량, 11만 9,900톤 / 16
- 동부태평양 1분기 가다랑어 어획량, 59% 증가 / 17
- 에콰도르 1분기 선망 어획량, 27% 증가 / 17
- PNA 4월 전재량, 22% 증가 / 18
- 방콕 가다랑어 5월 가격, 톤당 1,350달러 / 18
- 인도양 가다랑어 가격, 톤당 1,325유로 / 19
- 만타 가다랑어 가격, 톤당 1,320달러로 4% 하락 / 20
- 日 냉동 눈다랑어 4월 수입 가격, kg당 762엔 / 20
- 日 냉동 참치류 4월 수입 통계 발표 / 21
- IOTC 회의 앞두고 황다랑어 남획 감소 촉구 / 22
- IOTC, 가다랑어 MP 마련 및 IUU 규제 관련 합의 / 23
- IOTC dFAD 조치, 업계와 NGO 엇갈린 반응 유발 / 24
- WTO, 수산물 '식품 사기' 문제 주목 / 25
- 美 2024년 1분기 참치 통조림 수입, 4% 감소 / 26
- 태국, 2024년 1분기 통조림 수출 급증 / 27
- 태국, 1분기 美 대륙 참치 수출량 18% 증가 / 28
- EU-태국 FTA 협상, 올해 하반기 결론 예상 / 29
- FAO "기후 변화로 참치 어획량 감소 우려" / 30
- FFA, 날개다랑어 '구역 기반 한도' 원해 / 31
- 佛 유통업체, 지속 가능성 위해 GTA와 협력 / 32

Contents

- 佛 참치社, 손실 감축 위해 선원 임금 삭감 예정 / 32
- 참치의 건강 효능 / 33

■ 오징어어업 동향

- 어획량 호조로 일렉스 오징어 시장 낙관론 가득 / 34
- 中 4월 하순 살오징어류 가격, 고가 지속 / 35
- 日 23년 오징어류 총공급량, 전년 대비 8% 감소 / 35
- 日 2023년 냉동 살오징어류 수입량, 8% 감소 / 36
- 日, 1~3월 살오징어류 어획량 급감 / 36
- 페루, 2024년 대왕오징어 쿼터량 하향 조정 / 37
- 페루 오징어, 북태평양 오징어 대체 원료로 주목 / 38

■ 명태어업 동향

- RFC, 새 CEO 선임 후 명태 가공 생산 대폭 증가 / 39
- 러 연육 생산량, 2027년 10만 톤 예상 / 40
- 러시아 수출 관세, 2025년부터 폐지 / 41
- 러 어업, 비용 상승으로 재무 악화 / 41
- 대구 가격 압력으로 공급망에서 러시아산 감축 / 42
- 유럽, 미국 명태의 비상 채고 구축 / 43
- EU 명태 수입량, 2024년 1월 급감 / 43
- 日 포럼서 북미 최대급 연육 선상 가공선 소개 / 44
- 日 닛스이社, '마시는 속근 단백질' 제품 출시 / 44
- 러시아, "건강하고 맛 좋은 명태" 홍보 / 45
- 알래스카 명태 가격 변동, 아직 여전히 낮아 / 46
- 러시아 조업선, 러시아산 모니터링 장비로 변경 / 47

- 러시아 조업선, 러시아산 모니터링 장비로 변경 / 47

■ 꽁치어업 동향

- 꽁치, 어획량 저조로 일본 소비 감소 / 48
- 꽁치 조업 현황 / 49

■ 각국 수산 동향

- 원양어업, 과거와 현재 간 통계 주요 내용 / 50
- 한국 2024년 1분기 수산물 수입 동향 / 51
- 러 저연승 어업 "쿼터 강제 박탈, 심각한 위협" / 52
- 러, 국가 전략적 중요성에 따라 어업생산량 증가 / 52
- 서아프리카의 어족 자원 감소의 원인 / 53
- 밀레니얼 세대, 미국 수산물 소비 47% 차지 / 55
- 日 2023년 어업양식 생산량, 역대 최저치 / 57



쉬어가는 난

- 인생은 바다와 같아 - 알렉산더 블록 / 58



국내 수산 정보

- 5월 오징어 국내 동향 / 59
- 5월 명태 국내 동향 / 61
- 제1회 선원의 날 기념식, 6.21 개최 / 63
- 국민소통단, 수산물 안전관리 점검 / 63

협회 60주년 기념 회장단 간담회 개최

협회 회장단 대표이사 한 자리 모여 협회 미래 모색



우리 협회는 6월 4일 협회 설립 60주년을 맞이하여 과거의 성취를 기리는 한편 더욱 발전하고 번영하는 협회의 미래를 모색하고자 협회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김영규 협회장은 지속가능한 원양산업 선도 국가를 육성하는 원양협회를 목표로 △ 남태평양 핵심 어장의 협력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 외국인선원 근로조건 개선방안 △ 외국인 기관사 도입 추진 △ 2024년도 임금 교섭 등 각종 현안을 보고한 후 지난 60년간의 소회와 함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협회 회장단과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협회장은 “원양산업은 인류의 식량 산업으로

써 지속적으로 유지 및 발전할 산업으로, 기후 변화와 연안국의 자원 자국화 등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양산업은 지난 한 해 동안 75만톤(합작포함)을 생산하는 등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국가의 식량안보 및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원양산업은 우리나라 수산업의 양대 축으로, 원양산업 및 원양협회의 발전은 국가적인 이해와도 일치한다”라고 전하였다.

이날 회장단 간담회 종료 후 열린 오찬회에는 해양수산부 홍래형 수산정책관 등이 참석하여 협회 설립 60주년을 축하하는 한편, 업계 현황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의 시간을 가졌다.

2024 서울국제수산물전시회 참석

17개국 188개사 378개 부스 참가



우리 협회는 지난 5월 16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2024 서울국제수산물전시회에 참석하였다.

해당 행사는 한국수산회가 주최·주관하고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수산물무역협회가 후원하였으며,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코엑스에서 진행되었다.

개막식에는 해양수산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해양수산위원회, 수과원, KMI, 수협, 한국수산회

등이 참석하였다. 원양업계에서는 동원산업이 참석하였고, 협회에서는 김영규 협회장과 해외협력본부장이 참석하였다.

주요 행사로는 국내외 비즈니스 상담회, 해양수산 국제포럼, 쇼케이스 어워즈, 블루푸드 체험 스킴 등이 진행되었다. 동원산업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수산식품을 홍보하였으며, 참치해체쇼와 시식 시간을 가졌다.

제29회 바다의 날 기념식 참석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바다’ 주제

우리 협회는 지난 5월 31일 화성시 전곡항에서 개최된 제29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였다.

올해로 29번째를 맞은 바다의 날은 1994년 11월 유엔해양법협약 발효를 계기로 바다의 중요성을 알리고 세계 해양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1996년에 제정된 국가 기념일이다.

기념식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하여 경기도지사, 화성시장, 해양재단 이사장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하였다. 우리 협회에서는 김영규 협회장이 참

석하였다.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바다’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기념식에서는 해양수산 발전에 기여한 116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훈포장 및 표창식 수여가 진행되었다.



포클랜드 오징어 경제성분석 용역사 업무협의회 추진

연구 프로젝트 용역 관련 사항 협의

우리 협회는 지난 5월 23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포클랜드 오징어 경제성분석 용역사와 업무협의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는 용역사인 Tautenay Ltd사의 Steve Webster 상무가 참석하였고, 협회에서는 해외협력본부장, 해외협력 2부 부장, 송덕현 국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포클랜드 오징어 경제성 연구 프로젝트 소개 및 관련 사항에 관한 설명이 이루

어졌고, 경제성 연구 용역 등과 관련 확인·질의응답 등이 진행되었다.



해수부, '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정

원양어선원 추후 주택 특별공급 신청 가능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21일자로 「외항선원 주택 특별공급 운영기준」이 제정하였다.

고시 내용에 따르면 공급 대상은 3년 이상 근무하고 귀국일로부터 2년 이내이며, 무주택자이고, 청약 저축 1순위,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인 외항선원(원양어선, 외항상선, 해외취업선원)이다.

공급 기준은 국외 근무기간(60점), 무주택기간(10점), 부양가족(20점), 근로자연령(10점), 기타 가점(15점)이며, 원양어선 3년 이상 근무 시 기타 가점 5점이 부여된다.

외항선원이 특별공급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전용면적 85㎡(약 25평) 이하인 민영주택이다.

개별 주택공급자가 총 10% 범위에서 각 추천기관별로 특공물량을 배정하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전담기관으로서 물량 확보, 대상자 모집 공고, 대상자 확인·추천 등을 수행한다.

선원복지고용센터는 배정 물량 확보 시 수요를 반영하고자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6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로, 구글 폼*을 통한 인터넷 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대상은 현재 선박에 승선, 대기 중인 원양어선원, 외항상선원 또는 해외 취업선원이다.

* 주소: <https://forms.gle/H9tGW8KbCNzSpMNF8>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해양수산분야 설명회’ 참석

중처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위험성평가 등 설명 진행

우리 협회는 지난 5월 28일 오후 2시 경성대학교 프레지던트홀에서 개최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해양수산분야 설명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설명회에는 해양수산분야 업·단체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170여 명이 참석하였다. 원양선사 중에서는 동원산업, 동원수산, 사조산업, 신라교역 등이 참석하였다. 협회에서는

회원지원부 김영수 과장 외 1명이 참석하였다..

동 설명회에서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손영기 과장이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채성욱 노무사가 사업장 위험성평가, 작업전 안전회의 및 산재발생시 대응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며, 이후 관련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원양어업 제2도약 위한 대책 절실

해외는 국가 차원의 해외수산자원 확보에 사활 추세

최근 지구 온난화 등 기후의 급격한 변화로 수생생물 서식지와 어장 형성에 큰 영향을 주어 수산자원관리도 비상이 걸리고 있다.

우리나라 연근해 또한 수산자원 생태계의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동해안에 오징어, 도루묵 등 한류성 어족자원이 사라지고 있다는 보도자료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 이 모든 것이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따른 바다생태계가 큰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위한 수산자원 확보차원에서 우리 원양산업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주변국인 일본, 중국, 대만 등은 왜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인 해외수산자원 확보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현재 일본은 167척의 원양어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2,701척, 대만 2,000여척이 해외어장 원양수역에서 해외수산자원 확보를 위해 진출해 있다.

일본은 비용 절감을 통한 어업 효율화 및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역점을 두고 오랜 기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련업계를 지원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 내 연근해어업의 생산량 한계 문제를 원양어선 현대화 및 해외어장 개척, 어획량 증대와 같은 ‘해외어장 및 원양어업을 통한 생산 확대’에 수산정

책 역량을 집중한 결과, 2019년 2,701척의 원양어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원양어선의 52%가 선령 5년 미만의 신조선이다. 또한 2개 국가지정 원양어업 기지와 29개의 해외 기지를 건립하는 등 해외어장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대만은 참치어업과 관련하여 신조, 감척 등을 통한 경영의 규모화와 어획 능력을 조절하여 참치어선의 평균 선령을 낮추고 있으며, 원양어업개발센터에서 원양어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와 어장개발, 원양선원을 양성하고 있다.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1957년 지남호의 인도양 진출 이후 1960~70년대 정부의 수산물 수출진흥 정책에 힘입어 인도양, 대서양, 북태평양, 남태평양 등 해외어장을 넓혀나가며 수출 효자산업으로 성장하였으나, 주요 연안국들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와 국제사회의 공해어업 규제, WTO 체제하에서의 수산물 수입자유화 등으로 1990년 810척에 이르던 원양어선 세력이 2023년 201척으로 급격히 축소되었다.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지난 2007년 원양산업발전법 제정을 계기로 단순 생산 위주의 어업에서 벗어나 유통, 가공, 해외합작사업 등으로 연계되는 고부가가치 원양산업으로 전환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원양산업발전법 제정 이후 17년간 원양어업



의 지원과 체질 개선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책이 마련되기보다는 원양 업체의 경영 부담과 각종 규제 신설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원양산업발전법이 개정되었다.

원양산업발전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총 17회 개정 사항을 보면, 원양 업계 경영 부담 가중 또는 각종 행정 규제 관련법 개정 4회, 단순 문구 조정 등 12회지만 원양산업 지원관련 법개정은 단 1회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동안 원양선사는 110개사에서 40개사로 원양어선 척수는 387척에서 201척으로 원양어업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이는 원양어업을 둘러싼 국내외 경영환경의 변화 속에 불가피한 면도 있으나, 이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대책들을 법률로 뒷받침하지 못한 면이 있다.

원양산업이 필수 식량 산업으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생산 기반하에 유통, 가공, 수산식품산업으로의 전환과 원양선사의 규모화, 국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향후 출범하는 제22대 국회에서는 원양산업을 국가 수산식량산업으로서 안정적 생산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여 줄 것을 바란다.

원양업계가 22대 국회에 바라는 법 개정 사항

우선 2015년 원양노사간 합의한 외국인기관사 1인 승선을 위한 선박직원법 제10조의2(외국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한 특례)의 조속한 개정이다. 우리 원양업계는 적정 해기사의 부족으로 원양어선 출항 지연뿐만 아니라 중도 하선 해기사에 대한 보충 인력 미 확보로 행정제재를 받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이는

원양어선의 안전 운항 문제로 이어져 현재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과도 연관되어 경영자는 물론 현장 책임직원들에게 큰 위험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두 번째 현안은 우리나라 원양어선 선장, 기관장 등 유능 해기사의 대만, 필리핀, 중국 등 조업경쟁국으로의 연쇄적 이탈 예방을 위하여 원양어선원 소득 전액 비과세 관련법 개정이다. '24.1.1부터 시행된 소득세 법으로 선원비과세 기준이 확대(3백만원 → 5백만원) 되었으나, 국가 간 세금차로 유능한 해기사의 이탈을 막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원양 선사가 오랜 기간 축적한 핵심조업기술들이 대만, 중국, 필리핀 등 조업경쟁국으로 유출되고 있어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로 원양업계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제도 도입이다.

국내외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선원복지 및 근로조건 개선사업과 노후 원양어선의 신조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해운업계 적용하고 있는 톤세 제도와 유사한 세금 감면제도를 원양업계에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상선에서는 동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선복량 증대와 선원근로조건 개선 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경쟁국인 중국, 대만 등은 물론 유럽 선진 어업국들은 국가 차원에서 해외수산자원 확보산업인 원양산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22대 국회 출범에 앞서 원양업계가 직면한 현안 사항들이 입법과정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 법제화되기를 바란다.

〈한국수산신문 2024년 5월 6일자 수록〉



명예해양수산물 리포트

김점봉 세네갈 명예해양수산물



김점봉
명예해양수산물

가. 세네갈 조업 허가장 발급

- 세네갈은 배타적경제수역 조업에 외국 조업선 19척, 자국 조업선 132척, 전통 카누 조업선 1만 7,400척의 허가 목록을 공개하였다.
- 그간 외국적 조업선의 체장 미달어의 과도한 어획과 이에 대한 관리 부족 등으로 현지 수산인과 환경 단체의 비난에 대해 어업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황다랑어	10kg 초과	1,425
	3.4~10kg	1,325
	1.8~3.4kg	1,225
	1.5~1.8kg	1,075
	1.5kg 미만	875
눈다랑어	10kg 초과	1,275
	3.4~10kg	1,275
	1.8~3.4kg	1,225
	1.5~1.8kg	1,075
	1.5kg 미만	875
가다랑어	3.4kg 초과	1,275
	1.8~3.4kg	1,225
	1.5~1.8kg	1,075
	1.5kg 미만	875

다.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유로/톤)	조사일
다카르항	MGO	718	'24.5.26

김종태 피지 명예해양수산물



김종태
명예해양수산물

가. 입항 시 방역 규정 철저 시행

- 피지 입항 선박의 접안 관련 상선을 제외한 어선의 경우 검역이 엄격하지 않았으나 항만에서 해외 유입 곤충과 설치류 발견 등에 따른 방역 관련 문제가 발생하여 관련 규정의 철저한 시행이 이뤄지고 있다.
- 현재 부두 접안 시 연결 로프 등에 6개의 쥐 방호판의 설치가 의무 사항이며 미설치 시 부두 접안 금지 및 벌금이 부과된다.

나. 식량안보를 위한 양식 촉진

- 피지 수산부 장관은 양식업이 신뢰할 수 있는 단백질과 필수영양소를 제공하여 식량안보에 기여하므로 상업 양식을 통한 경제 성장 촉진을 원하며 피지 주변에 500명에 가까운 양식업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였다.

다. 경제 동향

- 피지의 인플레이션은 지난 4월 7.1%로 상승하여 지난 10년 중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 기상악화와 세금 인상의 영향으로 농산물가격도 상승하였다.

라.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비고
날개다랑어	10kg 상	2,700	로인가공용(PARCO)

마.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톤)	조사일
TOTAL	MGO	1,272	'24.6.10

박상천 인도네시아 명예해양수산물



박상천
명예해양수산물

가. 참치 가격 상승

- 인도네시아의 주요 식품 가격이 지속 상승하고 있으며, 이 중 수산물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나. 바닷가재 종자 양식 문호 개방

- 인도네시아는 바닷가재 종자 양식에 대해 외국인 자본과 기술 투자에 대하여 문호를 개방하였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 및 기술 유입은 기술 습득과 인력양성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다.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kg)
붉은 도미	20cm×10cm	3.2

라.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kl)	조사일
PERTAMINA	MDF	990	'24.6.5

오시영 사모아 명예해양수산물



오시영
명예해양수산물

가. 어장 동향

- 지난 5월 아메리칸 사모아 및 연근해 쿡 아일랜드 어장에서 날개다랑어를 평균 0.5~1.0톤, 황다랑어와 눈다랑어를 평균 0.3~0.6톤을 어획하여 전월 수준을 유지하였다.

나. 사모아 해양 자원 보존 계획 수립

- 2024년 6월 24일부터 26일간 태평양 도서 지역 어업협상이 하와이에서 개최된다. 2024년 7월에 종료되는 아메리칸 사모아의 해양 보존 계획에는 외국 선 어획 및 모니터링, 정보 분석, 연구, 교육, 자원 보존 및 경제성 향상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계획이 수립될 예정으로 수립된 계획은 3년간 효력을 유지한다.

다.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황다랑어	라운드	1,530
눈다랑어	라운드	1,330
가다랑어	라운드	1,330

라.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gal)	조사일
클리퍼오일	디젤	3.39	'24.6.6



윤정환 뉴질랜드 명예해양수산물



윤정환
명예해양수산물

가. 피지 IUU 어업 예방

- 뉴질랜드 해군이 피지 배타적경제 수역의 불법어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6주간 해양감독을 실시하였다.
- 이 기간 23척의 선박을 승선 검사하였으나 우려할 만한 IUU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

나.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오징어	2L	6,400
	L	6,200
	M	5,200
	2M	5,850
	S	4,550
	2S	4,550

다.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톤)	조사일
터니든	MGO	1,026	'24.6.5

이동춘 모리셔스 명예해양수산물



이동춘
명예해양수산물

가. 수산 보조금 협정 수락

- 모리셔스는 수산 보조금에 관한 협정을 공식적으로 수락한 75번째 WTO 회원국이 되었다.
- 현재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13개의

회원국이 동 협정을 수락하였으며, 이 협정이 발효 되려면 회원국의 2/3가 동의를 해야 하므로 앞으로 35개의 추가 수락이 필요하다.

나.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톤)	조사일
VIVO	MGO	925	'24.6.10

이상우 아르헨티나 명예해양수산물



이상우
명예해양수산물

가. 오징어 어업 동향

- 아르헨티나 국립수산물과학원에 따르면 남위 49도 남쪽의 오징어 자원을 10만 1,881톤으로 추산하였다.
- 오징어 크기는 180~307mm였으며, 수컷은 초기 성숙 단계였으나 암컷은 미성숙 단계였다.
- 지난 9개월간 아르헨티나 채낀기 조업선 70척의 어획량을 지난 4월 23일 취합한 결과 11만 8,878톤을 어획하였다. 주당 평균 어획량은 10~32톤으로 다양하였으며 지난 4주간 어획량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나. 제2차 노동 총파업 발생

- 아르헨티나 새 대통령 취임 5개월을 하루 앞둔 지난 5월 9일 0시에 아르헨티나 노동총연맹은 두 번째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 새 대통령 취임 후 보조금 삭감, 경제 규제 완화 등 각종 개혁에 따라 취임 전 물가 상승률은 11월 148.2%에서 지난 3월 287.9%로 급등하였다.
-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적은 월급 인상으로 구매력



상실, 사회 취약층 배려 결여 등으로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다.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L)	조사일
Epsol YPF	MGO	1.430	'24.5.12

이윤홍 가나 명예해양수산물관



이윤홍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해양 안보 위한 협력 강화

- "해상에서의 협력, 아프리카 해상 안보 보호" 심포지엄에서 참가국들은 아프리카의 해양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험을 공유하고 역량을 증대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며, 해양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가나 대통령은 서부 지역의 새로운 해군 기지 설립을 포함한 해양 안보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며, 안전하고 번영하는 해양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아프리카 해양 세력 간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나.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황다랑어	10kg 초과	2,200
	10kg 이하	1,760
가다랑어	3.4kg 초과	1,500
	1.8~3.4kg	1,450
	1.5~1.8kg	1,300
	1.5kg 미만	1,000

다.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kl)	조사일
GOIL	MGO	945	'24.5.31

정승화 파푸아뉴기니 명예해양수산물관



정승화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국가 수산 기업 설립 추진

- PNG는 1,800만 달러 상당의 자금을 현재 준비하였으며, 수산청이 직접 조업 등의 형태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수산업 부두 용지를 매입하는 등 구체적인 사항이 진행되고 있으나 국가의 공직자 부정부패를 고려할 때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kl)	조사일
TWL Logistics	디젤	853	'24.6.10

〈 게재 순서: 명예해양수산물관 성명 가나다순 〉



코다리 강정



❖ 이렇게 준비하세요

- 재료: 코다리 2마리, 전분 가루 1컵, 식용유 2L, 페페론치노 3개, 쪽파 2줄기, 홍고추 1/2, 청고추 1/2개, 통깨 약간
- 숙성 양념: 소금 1큰술, 후추 1큰술, 맛술 1컵
- 양념: 고추장 1큰술, 간장 1큰술, 굴소스 1큰술, 맛술 2큰술, 물엿 2큰술, 설탕 1큰술, 참기름 1큰술, 다진마늘 1큰술, 생강가루·후추 약간

❖ 이렇게 만드세요

- ① 코다리 대가리, 꼬리, 지느러미, 내장을 제거하고 씻은 후 3cm 길이로 토막 낸 후 숙성 양념으로 10분간 재워둔다.
- ② 쪽파, 홍고추, 청고추는 송송 썬다.
- ③ 재워둔 코다리의 물기를 제거한다.
- ④ 물기를 제거한 코다리에 전분 가루를 골고루 묻히고 180도에 바삭하게 두 번 튀겨준다.
- ⑤ 팬에 강정소스와 페페론치노를 넣고 바글 바글 끓으면 약불로 줄인 후 튀긴 코다리를 넣고 버무린다.
- ⑥ 버무린 ⑤의 코다리를 접시에 담고 홍고추, 청고추 넣고 통깨를 뿌려 완성한다.



6월 싱가포르 MGO 가격, 평균 700달러

6월 11일 기준 717달러

6월 11일 기준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81.36달러, WTI 가격은 77.90달러, 브렌트유 가격은 82.30달러를 기록하였다.

6월 11일 기준 싱가포르 선박용 경유(MGO) 가격은 톤당 717달러로 5월 10일(738달러) 대비 약 3% 하락하였다.

6월 평균(6.3~6.11) 가격은 700달러로 전월 평균(5.1~5.31)인 729달러 대비 약 4% 하락하였다. 전년 6월 평균보다 1% 하락하였고, 전전년 6월과 비교하면 48%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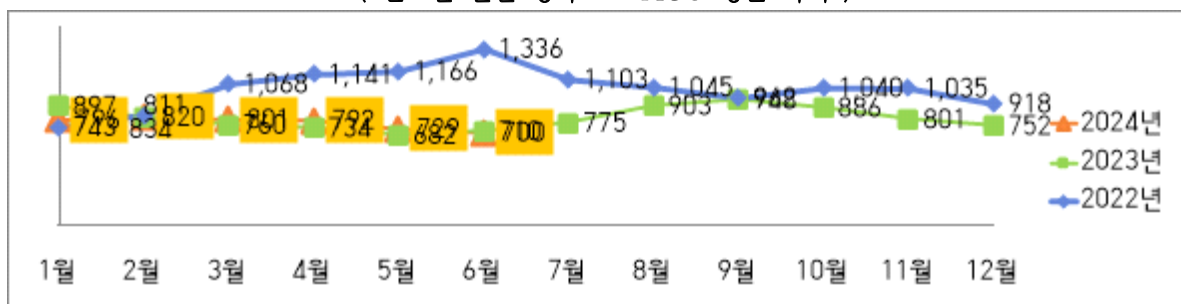
2024년 평균(1.2~6.11) 가격은 780달러로 전년(1.1~12.29) 평균 대비 2% 하락하였고, 전전년 평균 대비 25% 하락하였다.

미국의 원유재고가 373만 배럴로 집계되어 예상치인 -120만 배럴을 크게 웃돌았다. 이전 원유재고는 123만3천 배럴로, 이번 발표는 원유재고가 상당히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미국의 원유재고 증가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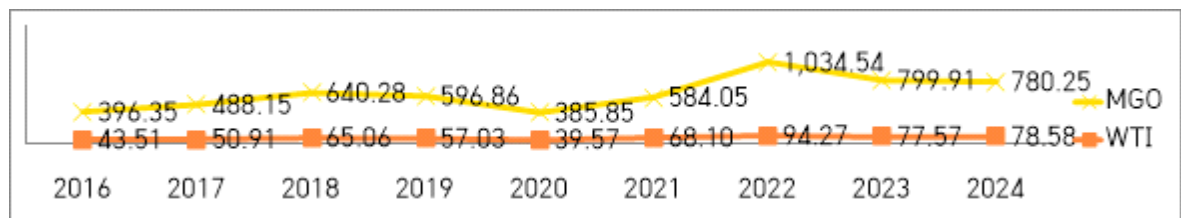
한편,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감산을 2025년까지 연장하되 올해 하반기에 일부 자발적 감산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국제 유가는 감산 연장 소식과 중국의 경제 회복 지연, 글로벌 수요 불확실성 등의 요인으로 인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유가가 어떻게 변동할지에 대해 시장 상황과 주요 소비국들의 수요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연도별 월별 싱가포르 MGO 평균 가격 〉



〈 연도별 MGO, WTI 평균 가격 〉





중서부태평양 4월 선망 어획량, 11만 9,900톤 황다랑어 어획량 급감

중서부태평양 참치 어획량은 4월에 소폭 감소하였다. 가다랑어 어획량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대형, 소형 황다랑어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어업은 서부에서 북부로 이동하였다.

선박조업일수제도(이하, VDS) 기준으로, 4월 어업 노력량은 3월 대비 467일 감소한 3,426일이다. 어업 노력량은 공해와 나우루협정당사국(이하, EEZ) 수역에서 각각 7%, 5% 감소하였다. 선단의 조업 활동은 마이크로네시아 수역으로 이동하였고, 그 결과 마이크로네시아에서의 조업 비중은 3월 21%에서 4월 36%로 증가하였다. 파푸아뉴기니(이하, PNG)에서의 조업 비중은 27%에서 17%로 감소하였다. 마셜제도(1%), 키리바시(11%), 나우루(2%)에서의 어업 노력이 다소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참치가 엘니뇨 약화로 인하여 서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관측된다.

4월 선망 어획량은 11만 9,900톤으로, 3월 어획량인 12만 1,012톤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일일 평균 어획량은 3월 31톤에서 4월 35톤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지난 5년간의 월별 일일 어획량 평균과 비교하면 약 5% 상승한 수치이다.

대형 황다랑어의 4월 어획량은 642톤으로 일일

평균 어획량은 0.2톤에 불과하다. 이는 2019년 1월 이래로 PNA 사무국에 보고된 사상 최저치이다. 소형 황다랑어 어획량은 0.8톤으로 51% 감소하였다.

4월 가다랑어 일일 어획량은 34톤으로 3월 대비 6톤 증가하였다. 그러나 조업 일수 감소로 인하여 4월 가다랑어 총어획량은 11만 5,400톤으로 0.5% 감소하였다. 대형 눈다랑어 일일 어획량은 0.03톤으로 거의 잡히지 않았다. 소형 눈다랑어 일일 어획량은 3월 대비 10% 증가한 0.33톤이다.

해수면온도 지수(SST Index)에 따르면 태평양 대부분 수역의 해수면 온도가 섭씨 +1.5도에서 +1.1도로 하락하면서 엘니뇨가 약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도 주변의 해수면온도는 섭씨 0.5~0.8도이다. 미 해양대기청(NOAA)은 6월에 ENSO 중립(엘니뇨 현상과 라니냐 현상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 기간)을 예상하였고, 라니냐가 6~8월 발생할 확률을 49%, 7~9월 발생할 확률을 69%로 예상하였다. 수온이 낮아지면 바다는 표층 수면에 더 많은 영양분을 함유하게 되며, 이에 따라 참치가 더 얕은 물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Atuna, 2024년 5월 23일자



동부태평양 1분기 가다랑어 어획량, 59% 증가 전체 참치 어획량 24% 증가

Veda(금어기) 동안 선단의 약 절반이 조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1분기 동부태평양 참치 어획량은 24% 증가한 24만 3,839톤을 기록하였다. 이는 전년도 동기 대비 4만 7,641톤 증가한 것이다.

1분기 가다랑어 어획량은 16만 9,342톤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6만 2,982톤이나 증가하였다. 2023년의 전체 어획량은 2022년 전체 어획량 대비 7만 5,581톤 증가하였는데, 2024년 1분기 증가량이 2023년의 전체 증가량과 비슷한 수준인 셈이다.

올해 1분기 가다랑어 어획량은 지난 7년간의 1분기 어획량을 통틀어 월등히 많은 수준이다. 가다랑어 가격은 5월 들어 톤당 1,375까지 하락하였는데, 이는 가공업체의 수요 이상으로 많은 어획물이 양륙되었음을 암시한다.

황다랑어 1분기 어획량은 15% 감소한 1만 1,098톤으로, 지난 7년을 통틀어 가장 적은 1분기 어획량이다. 눈다랑어 어획량은 40% 감소한 5,853톤을 기록하였는데, 눈다랑어가 어획량이 급증한 가다랑어를 어획하는 FAD에 혼획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급감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에콰도르, 파나마와 '기타'로 분류된 선단의 총어획량은 전년도 1분기 대비 4만 7,372톤 증가하였다. 에콰도르 선단의 어획량은 2만 3,231톤 증가한 10만 8,763톤으로, 전년도 대비 증가분의 약 절반을 차지하였다. 멕시코 선단과 베네수엘라 국적 선단의 어획량은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 출처: Atuna, 2024년 5월 24일자

에콰도르 1분기 선망 어획량, 27% 증가 가다랑어 어획량 46% 증가

2024년 1분기 동안 동부태평양 어획량은 24만 3,389톤으로, 이는 전년도 1분기 대비 약 25% 증가한 수치이다. 에콰도르 선망선단의 어획량은 27%나 증가한 10만 8,763톤으로, 동부태평양 전체 어획량의 약 45%를 차지한다. 이는 1월 중순까지 Veda(금어기)가 있었음에도 기록된 수치이다.

통계에 따르면 에콰도르 국적 선망선단은 2024년 1분기 동안 9만 5,059톤의 가다랑어를 어획하였다. 이는 전년도 1분기 대비 46% 증가한 수치로,

전체 어획량 대폭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어획량은 지난 5년간의 1분기 어획량을 통틀어 최대치이다. 1분기 어획량은 2022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

선망선단의 황다랑어, 눈다랑어 어획량은 좋지 못하였다. 황다랑어 어획량은 33% 감소한 9,510톤을 기록하였고, 눈다랑어 어획량은 35% 감소한 3,708톤을 기록하였다.

* 출처: Atuna, 2024년 6월 4일자



PNA 4월 전재량, 22% 증가

9만 2,600톤 전재

중서부태평양 4월 어획량이 소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우루협정당사국(이하, PNA) 항구에서의 4월 전재량은 22% 증가하였다. 파푸아뉴기니(이하, PNG)에서의 전재량은 3월 대비 약 2배로 증가하였다. PNA 측 데이터에 따르면 4월에 태평양 수역을 가로질러 전제한 선박의 수는 총 121척으로, 3월의 106척 대비 약 14% 증가하였다.

4월 총 전재량은 9만 2,600톤으로, 3월 전재량 대비 약 1만 6,500톤 증가하였다. 3월 전재량 중에서는 4만 4,846톤이 태평양 지역 가공업체에 판매되었으나, 4월에는 2만 7,300톤만이 태평양 지역 가공업체에 판매되었다.

마당, 라바울, 라에 등 PNG 항구에서 전체의 41% 인 약 3만 8,000톤이 전채되었다. 이는 2023년 10

월 이후 PNG 항구에서 기록된 최대 전재량으로, 방콕과 제너럴산토스로 향하는 가다랑어가 주를 이뤘다. PNG 항구의 리퍼 운반선은 3월 39척에서 4월 58척으로 증가하였다. 4월에 어획하여 전채된 어획물이 방콕에 도착하기까지는 약 6~8주가 소요된다.

미크로네시아에서 전채된 양은 약 3만 4,000톤으로, 3월 전채량인 2만 9,000톤 대비 증가하였다. PNG와 미크로네시아의 전채량 증가는 어획량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관측된다.

키리바시, 나우루, 솔로몬제도, 마셜제도, 투발루에서도 전채가 이루어졌다. 나우루에서는 4월에 전채 활동이 없었다.

* 출처: Atuna, 2024년 5월 24일자

방콕 가다랑어 5월 가격, 톤당 1,350달러

3주 전 대비 소폭 상승

소식통에 따르면 비(非) MSC 인증 가다랑어의 거래는 톤당 1,350달러에 체결되고 있다. 이는 3주 전 가격인 1,315달러 대비 3% 상승한 것이다.

해당 소식은 세계참치무역컨퍼런스가 방콕에서 개최되면서 시장의 관심을 크게 자극하는 와중에 나왔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더 높은 가격이 제시된 경우도 있으며, 몇몇 태국 주요 가공업체 측은 어가가 앞으로 수 주 안에 톤당 1,45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수개월간 평년 이상의 물량인 가다랑어 어획물이 방콕 항구에 양륙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곧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망선사 측은 중서부태평양의 일일 어획량이 준수한 상황이지만, 이전에 비해 다소 둔화하였다고 말하였다. 데이터에 따르면 가다랑어 일일 어획량은 4월에 34톤으로, 3월의 일일 29톤에 비하면 증가하였으나, 어획 일수는 더 적다.

* 출처: Atuna, 2024년 5월 22일자



인도양 가다랑어 가격, 톤당 1,325유로

어획량 저조 및 모리셔스 자발적 금어기 영향

수개월간 지속된 저조한 어획량과 모리셔스 EEZ에서의 자발적 금어기로 인하여 인도양 가다랑어와 황다랑어 가격이 상승하였다. 높은 해수면 온도가 어획량 저하의 원인이며, 다가오는 장마철로 인하여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

Atuna에 따르면 세이셸 가다랑어 가격은 톤당 1,325유로(약 1,441달러)까지 상승하였다. 이는 전월 가격인 톤당 1,250유로 대비 약 6% 상승한 가격이다. 일부 선사는 운반 비용 충당을 위하여 톤당 1,350유로까지 요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일부 선박이 한동안 손익분기점에 못 미치는 수준의 어획량을 기록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또한 인도양 가공업체는 공급 감소에 직면한 상태이다. 모리셔스에 위치한 프린스 공장은 자국 수역에서 어획하는 선박으로부터 원어를 공급받지만, 모리셔스가 5월 15일 EEZ에 대한 자발적인 금지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현재는 공해 또는 이웃 국가의 EEZ에서 조업하는 선박의 공급에 의존하고 있다. 타이유니온의 IOT 공장은 세이셸 EEZ에서의 어획물을 공급받고 있으나, 현재 해당 수역에서 조업하는 선박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대부분 어선은 기온이 섭씨 25~28도 정도인 인도

양 남부로 이동하였다. 선망선사 측은 어획량 저조 원인으로 해수면 온도 상승을 지목하였다. 미 해양 대기청(이하, NOAA)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양 북부 수역의 기온은 올해 첫 3개월 동안 섭씨 30도를 넘어 전년도 평균보다 높았다. 현재 해수면온도(이하, SST)는 이상 수준보다 1~2도 정도 높다. 세이셸 주변 수역의 SST도 섭씨 1.25도에서 2도 높아졌다.

소식통은 다가오는 장마철에 강한 바람과 악천후, 많은 비로 인해 인도양의 수온이 하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수온이 하강하면 참치는 선망선 그물이 닿는 위치인 수심 200m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의 황다랑어 거래는 톤당 2,700유로에서 2,750유로 선에 계약이 체결되었다. 업계 소식통은 세이셸의 황다랑어 가격이 이러한 높은 가격을 따라가며 톤당 2,450유로에서 2,500유로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Atuna는 세이셸의 황다랑어 원어 가격을 전월 대비 100유로 상승한 톤당 2,400유로로 설정하였다. 낮은 어획량으로 인해 선망어업은 황다랑어 쿼터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 출처: Atuna, 2024년 5월 28일자



만타 가다랑어 가격, 톤당 1,320달러로 4% 하락 대량 공급 영향

만타 가공 허브에서의 가다랑어 거래 가격은 대량 공급이 계속되면서 하방 압박을 받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만타 가다랑어의 6월 가격은 톤당 1,320달러 선으로, 대형 가공업체의 경우 톤당 1,300달러 선에서 체결되며, 소규모 가공업체는 톤당 1,350달러 선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다랑어 가격은 지난 3년을 통틀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22년과 2023년의 5월과 6월 만타 가다랑어 가격은 톤당 1,800달러 선이었다. 2021년 6월에는

가다랑어 물량 감소 및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가격이 톤당 1,350달러에 근접하였다.

현재 원어 공급은 최고조인 상태이며 주요 선사들은 선박이 만타 항구에 하역하기 위하여 7~10일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언급하였다. 전 가공업체는 최대로 공장을 가동 중이며 냉동 저장고도 꽉 찬 상태이다. 가공업체는 당일 생산할 분량만을 사들이는 상태이다.

* 출처: Atuna, 2024년 6월 4일자

日 냉동 눈다랑어 4월 수입 가격, kg당 762엔 2월 이후 하락세

일본 재무성 통계에 따르면, 다랑어류의 4월 수입 실적은 신선냉장 제품 수입량 398톤(전년 대비 6% 감소), 수입액 6억 2,800만 엔(31% 감소), 냉동 제품 수입량 1만 7,287톤(10% 감소), 수입액 167억 1,200만 엔(52% 감소), 가공품 수입량 4,342톤(13% 감소), 수입액 37억 2,800만 엔(4% 감소)이다.

냉동 눈다랑어 GG(아가미, 내장 제거) 수입량은 4,917톤(2% 감소)이며, 이 중 가장 수량이 많은 대만산 수입량은 2,508톤(12% 감소)이다. 다만, 초저온 냉동고 입고를 기다리는 대기선에 실린 아카

미(赤身)의 양은 1만 톤 이상으로 추정된다.

대만산 어획 눈다랑어의 평균 단가는 kg당 762엔(14% 하락)으로, 2월 단가가 kg당 828엔으로 상승한 이후 2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장기간 대기로 인하여 운항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선박은 올해 외지 조업선의 어획물 집하가 늦어지고 있다. 여기에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 초과보관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급하게 재고를 정리하면서 가격 유지가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4년 6월 7일자



日 냉동 참치류 4월 수입 통계 발표

한국산 눈다랑어 126톤 수입

〈 2024년 4월 일본 냉동참치 수입 통계 〉

(단위: 톤)

어종	국가	2024년 1월	2024년 2월	2024년 3월	2024년 4월
날개다랑어	한국	25	6	34	4
	대만	330	12	490	458
	바누아투	-	-	121	740
	기타	109	299	572	235
	소계	464	317	1,218	1,437
황다랑어	한국	261	148	76	265
	중국	425	472	624	375
	대만	1,798	970	1,118	1,742
	필리핀	-	-	49	-
	인도네시아	-	-	-	-
	미국	-	-	-	-
	바누아투	36	26	212	152
	피지	-	-	13	-
	카타바시	-	-	-	27
	마셜제도	-	-	45	-
	기타	1,359	630	289	1,658
	소계	2,869	2,245	2,426	4,220
눈다랑어	한국	259	225	297	126
	중국	202	755	808	980
	대만	1,928	1,438	2,319	2,508
	필리핀	-	-	-	0
	인도네시아	-	-	-	-
	세이셸	470	461	119	693
	바누아투	52	17	378	442
	기타	110	4	378	169
	소계	3,020	2,901	52	4,917
남방참다랑어	한국	-	158	17	-
	대만	95	143	1	6
	호주	-	-	19	-
	소계	95	-	37	-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4년 6월 7일자



IOTC 회의 앞두고 황다랑어 남획 감소 촉구

자발적인 감축으로 자원 재건 소요 시간 오래 걸려

5월 13일부터 18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제 28차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회의에서 여러 업계 단체와 NGO가 황다랑어 남획에 대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IOTC는 수년간 황다랑어 총허용 어획량을 줄이라는 압력을 받아왔으며, 2021년 6월 황다랑어 자원을 재건하기로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회의에서 가다랑어-황다랑어 쿼터나 표류성 어군집 적장치(dFAD)에 대한 합의에 또다시 실패하였다.

이제 글로벌 참치 연맹(이하, GTA)과 퓨 자선 재단과 같은 단체들은 IOTC에 자원 회복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GTA는 황다랑어 자원에 2015년 처음으로 남획이 선언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해당 자원이 계속 남획되고 있다고 말하였다.

GTA는 2019년에 설립되었으며, RFMO가 관리하는 참치 자원에 대한 어업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들은 전 세계 참치 산업과 관련된 소매업체와 수산물 공급망 회사 등 52개의 다양한 파트너로 구성되어 있다.

GTA 전무이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IOTC 회의는 인도양 참치의 미래가 결정되는 자리이다. 따라서 참치 공급망의 거대한 부분을 차지하는 파트너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하였다.

GTA는 지속 가능한 어업이 2024년 참치 시장에 필수적이라고 말하였다.

GTA는 인도양의 황다랑어 개체수가 2세대(약 10년) 이내에 재건되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 GTA는 인도양 황다랑어 어획량을 2020년 어획량에 비해 30% 감소하여 2030년까지 67%의 확률로 자원을 재건할 수 있도록 IOTC에 요구하고 있다.

이 단체는 IOTC 회원국이 어획량을 줄인 것은 인정하지만, 자발적인 어획량 감축만으로는 IOTC 과학위원회의 조언을 충족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였다.

"IOTC 회원국은 황다랑어의 미래를 담보로 게임을 하면 안 되며 자원 재건이 오래 걸릴수록 이 자원에 의존하는 국가에 해가 될 것이다."

퓨 자선 재단은 또한 IOTC가 황다랑어 남획에 대처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퓨는 보도자료에서 "황다랑어 관리는 수년 동안 실패해 왔으며, 과학자들이 2015년부터 황다랑어 개체수를 남획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우려스럽다"라고 말하였다. "관리자들은 황다랑어 어획 한도에 대한 연례 협상에 마무리를 짓고, 남획을 종식하기 위해 즉시 한도를 줄이고, 관리 절차의 개발과 채택을 서둘러야 한다."

2022년에 IOTC 과학위원회는 황다랑어 자원이 여전히 남획되고 있으며 TAC를 줄여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 출처: SeafoodSource, 2024년 5월 13일자



IOTC, 가다랑어 MP 마련 및 IUU 규제 관련 합의 황다랑어 자원 회복 계획 진전 없어

인도양참치위원회(이하, IOTC) 연례회의가 5월 17 일자로 가다랑어 및 IUU 어업 관련 중대한 진전과 함께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전년도와 달리 황다랑어 자원 회복 계획은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퓨 자선재단(Pew Charitable Trusts)의 국제 수산 프로그램 수석 책임자인 Glen Holmes는 “가다랑어 어획량은 2016년부터 매년 한도를 초과하였다”라며 “이제 가다랑어 자원은 남획 방지를 돕는 전체관리절차(full management procedure, 이하 MP)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하였다.

인도양 IUU 근절을 위한 중요한 조치도 취해졌다. 중국과 소말리아는 IUU 선박 명단 등재 규정과 관련하여 두 가지의 제안을 내놓았다. IOTC는 IUU로부터 이익을 얻거나 이를 지원하는 모든 당사자를 조사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필수 요건이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는 개인과 기업이 IUU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황다랑어 자원 회복 계획에는 큰 진전이 없었다. 퓨 자선재단 측은 황다랑어 남획에 대한 조치 부족을 비판하면서, IOTC가 황다랑어 자원 회복을 위하여 의견을 모으는 데 실패하였다고 지적하였다.

IOTC는 2023년 부유형 FAD 금지를 채택하였으나 EU, 세이셸, 필리핀은 모두 이 조치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산업 및 영세 어업에 미칠 영향을 언급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였다.

EU 위원회는 최근 인도양참치위원회(이하, IOTC) 연례회의에서 합의된 보존 및 관리 조치가 인도양 참치 어업을 지속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EU 위원회는 이들의 제안 일부가 채택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EU는 연례회의에 앞서 IOTC에 열대 참치 관리 다년 단위 계획, 부유형 FAD(dFAD) 새 관리 조치, 1개월간의 금어기 등을 제안하였다.

EU의 성명에 따르면 IOTC는 완전 비 생분해성 dFAD의 사용을 즉각 금지하고, 비 생분해성 구성 요소를 완전 생분해성으로 점진 전환하는 조치를 포함한, “모든 해양을 통틀어 가장 야심 차고 엄격한 프레임워크”를 시행한다.

EU는 선박당 dFAD의 숫자를 “모든 지역수산물관리 기구(이하, RFMO)를 통틀어 최저 수준의 한도”로 감축하는 조치를 환영하였다. 보다 나은 어업 관리를 위한 dFAD 등록 제도의 최초 설립에 대해서도 EU는 환영을 표하였다.

회의에서 채택된 가다랑어 관리 절차(이하, MP) 또한 환영받았다. 눈다랑어 MO는 2023년에 채택된 바 있다. 그러나 EU는 황다랑어 및 눈다랑어 자원을 위하여 제안한 1개월 금어기 조치가 채택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하였다.

* 출처: Atuna, 2024년 5월 17일자, 28일자



IOTC dFAD 조치, 업계와 NGO 엇갈린 반응 유발 dFAD 조치 등

인도양참치위원회(IOTC)의 지난 5월 중순 진행된 연례회의에서, 부유형 FAD(이하, dFAD) 조치 합의는 NGO로부터 환영을 받았으나 업계로부터는 환영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NGO는 황다랑어 자원 및 상어 지느러미 채취 관리 조치 합의 실패에 실망감을 표하였다.

블루마린재단(Blue Marine Foundation)은 언론 보도자료를 통하여 “황다랑어 남획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 파키스탄 대표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IOTC는 이제 남획 10년 차에 접어드는 자원인 황다랑어 자원 회복 계획을 채택할 기회를 또 다시 놓쳤다.”라고 밝혔다.

모든 어구에 대한 1개월 금어 조치를 제안한 EU 측은 dFAD 조치 최대의 반대자로 지목받았다. 블루마린재단 측은 EU 선망선단의 치어 어획을 막기 위한 금어기가 없는 dFAD 조치가 채택된 것에 대한 실망감을 표하였다.

프랑스 참치 생산자 협회 Orthongel은 EU 선망선단과 지역 회원국 간에 공정한 경쟁의 장이 부족하다

고 주장하였다. 회의 종료 직전에 승인된 dFAD 관리 조치 개정안은 선박당 부표 수의 점진적 감축, 공급 선박의 감축, FAD 등록 도입, 생분해성 FAD로의 전환 채택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그러나 한국, 탄자니아, 세이셸, 모리셔스는 선박당 부표 감축 개수를 적게 적용받는 등 규정을 덜 엄격하게 적용받는다.

Orthongel 측은 모니터링, 통제, 감시 (monitoring, control, and surveillance) 강화 제안이 무산된 것에 좌절감을 표하며 선망어업만이 많은 것을 요구받는다고 말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글로벌참치연맹(이하, GTA)은 "dFAD 관리의 실질적인 개혁"을 환영하고 그 노력을 인정하였다. 지속 가능한 참치 시장을 추구하는 GTA 파트너들은 IOTC 회원국이 황다랑어 어획량 감소에 합의하지 않은 점에 유감을 표하였다. 이들은 가다랑어 관리 절차는 환영하지만 상어 지느러미 채취 감축 관련 조치가 전혀 취해지지 않은 점에 불만을 표하였다.

* 출처: Atuna, 2024년 5월 21일자



WTO, 수산물 '식품 사기' 문제 주목

수산물 정보 표기 오류 등 강조

세계무역기구(이하, WTO)에 따르면 '식품 사기(food fraud)'와 불법 관행 등으로 인하여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다.

지난 5월 28일, WTO는 규제 조치, 집행 방식, 문제 해결을 위한 업계 협력 및 소비자 교육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여 '위법 식품 무역 및 식품 사기'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수산물은 이러한 문제에 영향을 받는 식품 중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부류이다. 참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어류임에 감안하면, 참치 제품은 시장에 따라 여러 위법 행위에 노출될 수 있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공정한 경쟁의 장의 마련은 기준 미충족 식품, 허위 라벨 식품, 위조 제품, 밀수품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위법 무역 및 사기 행위를 배제하는 것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글로벌 거래의 추정 연간 경제적 손실은 미화 3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보고서는 수산물이 식품 사기에서 가장 많은 표적이 되는 부문 중 하나라고 강조한다. 고가 품목은 대체 및 허위 라벨링이 발생할 수 있고, 저가 종은 더 비싼 어종인 것처럼 허위 라벨링이 발생할 수 있

으며, 양식산은 자연산인 것처럼 위조될 수 있다. 유로폴(유럽형사경찰기구)이 2022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압수한 이러한 위법 제품은 약 3천만 유로 규모이다. WTO는 국경을 넘어 품목을 밀수하거나, 특정 시장을 대상으로 한 수산물을 다른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과 같은 승인되지 않은 경로를 통한 수입도 위법 식품 관행이라고 강조하였다.

수년 전 과학 잡지 ResearchGate에서는 '유럽의 참치 라벨: 참치 제품별 라벨 오류 빈도'라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기사에 따르면 참치 통조림 라벨 오류는 어종 대체 또는 두 번째 어종의 추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 이전에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유럽의 참치 통조림 제품 중 약 7.8%에서 라벨 오류가 발견되었다. 특히 황다랑어로 표기된 제품 중 절반은 날개다랑어로 나타났다. 참치 품목의 중량 오류 또한 사기 관행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다.

WTO 보고서는 수산물 허위 라벨링이 "불법적으로 조달된 어류가 합법적 수산물로 세탁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거나 유지하는 데 기여함과 동시에 해양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며, 식품 사기가 어떻게 정보에 입각한 식품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소비자로부터 박탈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하였다.

* 출처: Atuna, 2024년 5월 29일자



美 2024년 1분기 참치 통조림 수입, 4% 감소 약 1억 4,385만 달러

미국 참치 통조림 수입은 2024년 1분기에 소폭 감소하여 총수입액이 1억 4,385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태국으로부터의 통조림 수입 또한 감소하였다.

2024년 1분기 미국의 참치 통조림 제품 수입량은 총 3만 2,902톤으로, 2023년 1분기 대비 4% 감소하였다. 평균 수입 단가는 톤당 187달러로 전년 대비 4% 상승하였다. 2024년 1분기 수입량은 2020년 이후 가장 적은 1분기 수입량이다.

1분기 태국산 통조림 수입량은 1만 6,672톤이며, 수입액은 전년 대비 약 682만 달러 감소하였다. 평균 수입 단가는 톤당 4,243달러로 1% 상승하였다. 미국의 1분기 태국산 통조림 수입량은 지난 수년간 감소 추세이다. 2020년 1분기에 미국의 1분기 태국산 참치 통조림 수입량은 팬데믹 사재기의 영향으로 2만 6,571톤을 기록하였다. 시장이 안정화된 2021년 1분기에도 미국의 태국산 통조림 수입량은 2만

3,666톤으로, 올해 1분기 수입량보다 42% 많았다.

멕시코산 통조림 수입량은 4,746톤으로 4% 증가하였으나, 평균 수입 단가는 톤당 4,737달러로 10% 상승하였다. 멕시코산 제품은 주로 라틴아메리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업체로 판매된다.

베트남산 통조림 수입량은 36% 증가한 5,423톤을 기록하였으나, 수입 단가는 26% 상승한 톤당 4,350달러를 기록하였다. 베트남 가공업체는 Wild Planet 브랜드의 날개다랑어 제품을 가공한다.

에콰도르산 통조림 수입량은 전년도 1분기 대비 88%나 감소한 291톤에 그쳤다. 이러한 급감은 수입 단가가 전년 대비 19%나 상승한 톤당 5,491달러를 기록한 것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중국산 수입량은 미-중 관세 문제로 2023년 1분기부터 제로(0)를 기록 중이다.

* 출처: Atuna, 2024년 5월 31일자

Drop In US Canned Tuna Imports

US: Import Of Canned Tuna In M/T, Q1
Top 10 Origins

	2022		2023		2024		Change %	
	M/T	FOB	M/T	FOB	M/T	FOB	M/T	FOB
Thailand	18,891	\$4,360	18,396	\$4,216	16,672	\$4,243	-9%	1%
Mexico	4,062	\$3,663	4,562	\$4,318	4,746	\$4,737	4%	10%
Vietnam	3,741	\$6,172	3,974	\$3,465	5,423	\$4,350	36%	26%
Indonesia	3,886	\$4,302	2,338	\$3,278	1,922	\$3,659	-18%	12%
Ecuador	1,408	\$4,272	2,457	\$4,610	291	\$5,491	-88%	19%
Philippines	379	\$4,028	854	\$4,376	947	\$4,472	11%	2%
Costa Rica	620	\$5,920	625	\$6,079	832	\$5,391	33%	-11%
Peru	40	\$5,870	155	\$5,320	781	\$4,985	404%	-6%
Spain	224	\$4,554	190	\$4,483	454	\$3,532	138%	-21%
China	575	\$3,820	0	\$0	0	\$0	0%	0%
Others	889	\$4,491	797	\$5,665	834	\$5,027	5%	-11%
Grand Total	34,715	\$4,485	34,348	\$4,185	32,902	\$4,372	-4%	4%

Source: NOAA

Powered By: Atuna Analyst



태국, 2024년 1분기 통조림 수출 급증

1분기 美 대륙 참치 수출량 18% 증가

태국 가공업체는 2024년 1분기에 지난 4년을 통틀어 참치 통조림을 가장 많이 수출하였다. 아랍 시장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

2024년 첫 3개월 동안 태국 통조림 업체는 12만 5,357톤의 참치 통조림을 수출하였다. 이는 2023년 대비 17% 증가한 수치이다. 톤당 평균 단가는 4,353달러로 전년도 대비 톤당 51달러 상승하였다. 2023년 마지막 분기에 주문이 들어왔을 때 방콕 가다랑어 가격은 2022년 같은 시기 가격보다 낮았다.

3년 동안의 거래 감소 이후 사업은 2020년 팬데믹 이후 정상화된 것으로 간주하였던 2021년 매출을 초과하는 규모로 회복되었다.

미국형 수출량은 지난 분기 대비 3,663톤 증가한 2만 2,584을 기록하며 1위 시장 자리를 지켰다. 수출 단가는 126달러 하락한 톤당 4,492달러를 기록하였다. 전통적으로 중요한 시장이었던 호주형 수출량은 지난 분기 대비 5% 감소한 8,535톤을 기록하

였고, 수출 단가는 4% 상승한 5,082달러를 기록하였다. 호주 시장은 MSC 참치의 수요가 높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한 아랍 국가로의 태국 통조림 수출량이 증가하였다. 태국 참치 수출 회사 JMB International의 Arnab Sengupta 부사장에 따르면 이집트와 리비아로의 참치 통조림 수출은 한 동안 불안정한 통화의 영향을 받았다. 미국 달러에 대한 이집트 화폐의 높은 환율로 인해 2023년 태국 제품은 이집트에서 지나치게 비싸졌다.

1분기 냉동 원어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다음 분기에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Sengupta 부사장은 대부분의 아랍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추가적으로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2023년에 미리 많은 주문을 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따라서 아랍 시장에 판매되는 물량은 다음 분기에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Atuna, 2024년 5월 13일자

Sales To Arabic Markets Resumed

THAILAND: Export Canned Tuna

In M/T Major Destinations, CFR Value per 1 M/T, Q1

	2022		2023		2024		Diff. %	
	M/T	CFR	M/T	CFR	M/T	CFR		
USA	23,025	\$4,682	18,921	\$4,618	22,584	\$4,492	19%	-3%
Libya	9,983	\$4,008	8,699	\$4,001	10,549	\$4,006	21%	0%
United Arab Emirates	4,351	\$4,327	6,140	\$4,130	10,513	\$4,460	71%	8%
Saudi Arabia	5,233	\$4,238	12,038	\$4,204	8,556	\$4,239	-29%	1%
Australia	10,502	\$4,773	8,961	\$4,869	8,535	\$5,082	-5%	4%
Israel	4,640	\$4,158	4,147	\$4,257	7,769	\$4,229	87%	-1%
Egypt	20,429	\$2,822	5,461	\$3,208	7,439	\$2,892	36%	-10%
Japan	5,801	\$5,309	7,308	\$5,178	7,114	\$5,244	-3%	1%
Canada	5,845	\$4,782	4,540	\$4,800	6,873	\$4,767	51%	-1%
Chile	2,615	\$3,754	4,482	\$3,827	2,946	\$3,768	-34%	-2%
Peru	1,067	\$4,225	1,614	\$4,500	2,930	\$4,439	81%	-1%
Switzerland	1,736	\$5,030	1,318	\$4,982	1,961	\$5,306	49%	6%
New Zealand	1,160	\$4,831	924	\$4,923	1,597	\$5,168	73%	5%
Yemen	2,116	\$4,034	1,178	\$3,950	1,524	\$4,325	29%	9%
South Africa	1,460	\$3,588	1,253	\$3,884	1,447	\$3,722	15%	-4%
Others	19,791	\$3,954	19,983	\$3,932	23,021	\$4,180	15%	6%
Grand Total	119,753	\$4,136	106,965	\$4,302	125,357	\$4,353	17%	1%



태국, 1분기 美 대륙 참치 수출량 18% 증가 북미 지역 수요 급증

태국 통조림 가공업체는 북미 시장으로의 수출 급증에 힘입어, 2024년 1분기 미 대륙으로의 수출이 대폭 증가하였다. 미국과 캐나다는 가다랑어 통조림의 주요 수출 시장 지위를 유지하였다.

태국은 2024년 1분기 미 대륙행 참치 통조림 수출량은 전년도 1분기 대비 5,950톤 증가한 3만 8,613톤으로, 미 대륙 대부분의 국가로의 수출이 증가하였다. 평균 수출 단가는 톤당 4,418달러로, 전년도 1분기 대비 23달러 하락하며 거의 동등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데이터에 따르면 태국의 1분기 참치 통조림 수출량은 2020년부터 전년도 대비 하락세였으나 올해 반등하였다. 수출 단가는 2022년 정점을 기록한 후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미국행 수출량은 2023년 1분기에 전년도 대비 대폭 감소하였으나, 2024년 1분기에는 전년도 대비 19%나 증가한 2만 2,584톤을 기록하였다. 대부분의 물량은 타이유니온 산하의 Chicken of the Sea와 Bumble Bee 자사 라벨로 향하였다. 수출 단가는 톤당 4,494달러로 전년도 대비 126달러 하락하였다.

또 다른 주요 시장인 캐나다행 수출량은 6,873톤으로, 전년도 1분기 대비 2,333톤 증가하였다. 평균

단가는 1분기 미 대륙 전체에서 두 번째로 높은 톤당 4,767달러나, 이는 전년도 1분기 가격과 비교하면 33달러 하락한 수치이다.

칠레와 페루는 1분기에 남미 시장 중 수출량 상위권을 기록한 국가들이나, 전년도 1분기와 비교하면 수출량과 수출 단가 모두 하락하였다.

북미 국가인 세인트루시아로의 평균 수출 단가는 4,776달러로, 전년도에 이어서 미 대륙 시장 중 평균 단가 1위를 기록하였다. 세인트루시아행 수출 단가는 미 대륙 전체 평균 수출 단가보다 358달러 높다. 남미 국가인 가이아나로의 수출 단가는 톤당 2,711달러로 미 대륙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3년 전까지만 해도 태국의 중요한 수출 시장이었던 아르헨티나로의 수출량은 감소세를 이어 나갔다. 아르헨티나행 수출량은 올해 1분기에 단 197톤만을 기록하였고, 수출 단가는 톤당 3,206달러를 기록하였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달러 환율을 기록하는 등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 5월 초 아르헨티나에서는 자국산 참치 브랜드를 소비할 여력이 없어 수입 참치에 의존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하였다.

* 출처: Atuna, 2024년 5월 16일자



EU-태국 FTA 협상, 올해 하반기 결론 예상

FTA 협상 및 태국 참치 업계 관련 응답

지난 5월 20일 태국 방콕 참치 컨퍼런스에서, 태국 참치산업협회(이하, TTIA)의 차리사라폰 회장은 EU-태국 간 TFA협상이 2023년 시작되었고 올해 하반기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차리사라폰 회장은 “참치는 EU에서 매우 민감한 주제이며 우리는 EU 이해관계자들과의 상호 호혜를 위하여 협력할 의사가 있다. EU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떠한 피해도 끼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하였다.

태국 참치 유입이 스페인 통조림 부문에 치명적일 것이라는 스페인 업계의 반발에 대하여, 차리사라폰 회장은 “우리는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 EU에서 우리의 시장 점유율은 5%에 불과하다. 우리는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환영한다.”라고 답하였다.

세계 최대 참치 가공국인 태국은 EU 수출 시 24%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번 EU와의 FTA에 참치 통조림이 포함된다면 유럽 시장 진출에 중대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태국은 협상을 진행하기 위하여 조만간 EU 규제 당국과 접촉할 예정이다.

프레젠테이션에서 차리사라폰 회장은 태국 참치 산업이 균형이 잘 잡혀 있다고 말하였다. TTIA, 태국식품가공협회, 태국냉동식품협회 등은 참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협력해 왔다.

TTIA 측은 태국이 냉동 참치 원어의 95%를 수입하며, 자국산의 비중은 5%라고 밝혔다. 2022년에 태국 가공업체는 중서부태평양산 어획물 68만 톤을 수입하였고, 태국만과 만다만에서 어획된 자국산은 5만 4,000톤을 매입하였다.

차리사라폰 회장은 TTIA가 강제노동이나 불법노동 행위에 연루되지 않으려는 취지와 함께 긍정적인 노동 관행을 지지하기 위하여 회원사가 TTIA의 윤리적 노동관행-근로자 행동강령에 서명하였고, 효율적 채용 및 긍정적인 노동 관행 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에 참여 중이라고 밝혔다.

차리사라폰 회장은 아울러 태국 참치 산업이 음식물 쓰레기나 식품 손실 모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참치 생산 부산물을 부가가치 상품으로 전환 가능하다고 밝혔다. 참치 통조림 수출액은 평균 20억 9,600만 달러에 이른다. 반려동물 사료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으며 수출액은 22억 9천만 달러에 달한다. 어분 부문은 지난 5년간 17% 성장하였다.

차리사라폰 회장은 태국 참치 산업이 직면한 문제로 참치 자원 지속가능성, 노동 문제 해결, 해양 오염 문제 대처 등을 지목하였다.

* 출처: Atuna, 2024년 5월 21일자



FAO “기후 변화로 참치 어획량 감소 우려”

기후 변화로 도서국 EEZ에서 공해 이동 가능성 제기

유엔 식량농업기구(이하, FAO)의 프로그램인 ‘Common Oceans Program’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기후 변화로 인하여 참치들이 공해로 이동하면서 태평양 도서국의 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 파푸아뉴기니(이하, PNG) 등 도서국의 참치 어획량은 3분의 1이 감소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어업 관리를 지원하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국가 관할권(ABNJ)을 넘어 태평양 지역의 어족 자원을 조사하였다. 2050년까지 자원에 대한 기후 변화의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주로 "물리적-생지화학적-생태학적" 시스템을 사용하는, 참치와 원양어업에 초점을 맞춘 5가지 이니셔티브가 존재한다. 참치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이 모델에 따르면 태평양 도서국의 참치 어획량(가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의 생물량 합계로 추산) 예측치는 다음과 같다. - PNG 37% 감소, 미크로네시아 26% 감소, 마셜제도 15% 감소. 해당 연구는 또한 쿡제도와 키리바시 동부 수역 어획량이 각각 18%, 15%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에 따라 선박조업일수제도(이하, VDS)라고도 불리는 외국 국적 선박에 부여된 참치 어업 허가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도서국 정부 수입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NGO 단체인 Conservation International의 연구원 그룹은 참치 의존도가 높은 10개 태평양 도서국에서, 참치의 이동으로 인하여 연간 1억 4,000만 달러의 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Common Ocean Program’은 규제 체계를 강화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 참치 및 원양어업 관리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참치 프로젝트는 2027년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원들은 예측을 개선하고 기후가 참치 개체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이해를 얻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참치 연구를 태평양에서 대서양 및 인도양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 출처: Atuna, 2024년 5월 17일자



FFA, 날개다랑어 ‘구역 기반 한도’ 원해

노동 관련 개선 등 논의

태평양도서국수산위원회(이하, FFA)의 수산 관계자, 지역수산관리기구(이하, RFMO) 옵서버, NGO 등이 5월 6일부터 10일까지 나우루에서 개최된 포럼 수산위원회(이하, FFC) 연례회의에서 태평양 참치 어업에 관한 논의를 마쳤다.

이들이 합의한 핵심 사안으로는 남태평양 날개다랑어 자원에 대한 구역 기반 관리와 외국 국적 선박에 대한 노동 기준 등이 있다. 이러한 주제는 태평양 도서국이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이하, WCPFC) 회의 전에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제안을 예상할 수 있게 한다.

남태평양 날개다랑어 자원은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며, FFC는 해당 자원에 대한 ‘구역 기반 관리(zone-based management, 연승 VDS 포함)’ 개발을 우선순위로 두기로 합의하였다. 해당 주제는 2024년 말 WCPFC 연례회의에서 언급될 예정이다.

나우루협정당사국(이하, PNA) 가입국을 포함한 17개 FFA 회원국은 지난 수년간 날개다랑어 연승어업에 대한 구역 기반 한도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2021년과 2022년에 FFA는 WCPFC에 해당 자원에 대한 조치 강화를 제안한 바 있다. 쿡제도, 피지,

니우에, 사모아, 통가, 바누아투 등이 해당 어업에 의존하고 있다. 해당 국가들은 자국 수역에서 조업하는 모든 선박이 적용 가능한 한도를 포함하여 자국의 관리 체계에 속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도서국 관할 수역에서 어획된 모든 어획물은 도서국 관할에 속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FFA 회원국은 이미 국가별 연승 한도를 보유하고 있다.

FFC 회의에서는 노동 기준 개선 역시 주요 주제로 논의되었다. 지난 수년간 일부 참치 선망선단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논란이 되어 왔다. FFC는 FFA 회원국 대상 가이드라인에 대한 WCPFC의 차후 규정 개선을 위한 지역 단위 훈련 워크숍 조직을 지지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태평양 도서국이 12월 WCPFC 연례회의 전에 ‘HMTTC’를 국가 수준으로 도입하도록 지원하려는 목표 일부이다. HMTTC는 FFA 회원국 수역에서 조업 허가를 받은 외국 선단 선원에 대한 최소한의 조건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ILO 어업노동협약을 기반으로 한다. 여기에는 선원이 이해 가능한 언어로 작성된 계약서의 작성, 적절한 숙박 시설 및 공정한 급여가 포함된다.

* 출처: Atuna, 2024년 5월 14일자



佛 유통업체, 지속 가능성 위해 GTA와 협력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목소리 반영 필요

프랑스 소매 시장의 40% 이상이 지속 가능한 참치 어업 관행을 지지하기 위해 글로벌 참치 연맹(이하, GTA)과 힘을 합쳤다.

이 연합의 최신 캠페인은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지역수산물관리기구(RFMO) 개혁 및 업계 전반의 지속 가능한 관행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계획의 일환으로 GTA는 프랑스 소매 파트너를 위한 맞춤형 파일럿 프로그램인 '보완 모듈'을 도입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공급망의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고 완화하기 위해 선박 수준의 세부 정보를 포함한 참치 통

조리를 조사할 목적으로 고안되었다.

레 무스케아르, 시스템 유, 리들, 카지노社 등 프랑스의 주요 소매업체들이 이 계획에 동참하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기존 GTA 회원사인 메트로도 프랑스 매장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약속하였다.

GTA는 인도양의 관리 계획이 주요 참치 자원을 보호하는데 "불충분한 것으로 입증"되어 남획에 취약하므로 이러한 협력은 "특히 시의적절하다"라고 말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4년 5월 7일자

佛 참치社, 손실 감축 위해 선원 임금 삭감 예정

선원 공급품 축소 및 어업활동 연장 등 협상

프랑스 브르타뉴에 본사를 둔 프랑세즈 뒤 톤 오 세아니社(이하, CFTO)가 승무원 임금 30% 삭감을 포함한 과감한 비용 절감 계획을 발표했다고 '프랑스 3'이 보도하였다.

2024년 초, 이 회사는 인도양에서 8척, 대서양에서 5척을 운영하는 참치 선망어선 중 어느 것도 매물로 내놓지 않았다. 이는 프랑스 콩카르노 지역에 본사를 둔 다른 참치 어획 업체인 사퍼社와 비아오션社에서 동일 업종 어선을 매각한 후 퍼진 선박 매각 소문에 반응한 것이다.

CFTO는 연료를 절약하고 사업을 수익성 있는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선내 공급품 축소, 담배 공급 중단, 어업활동 연장 등을 놓고 노동조합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프랑스 회사의 손실은 2020년과 2021년에 거의 3천만 유로(3,250만 달러)에 달했으며, 그 이후 재무 세부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노조에서는 260명의 승무원이 양보할 의향이 있지만 임금이 유일한 변수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노조 대표는 급여가 30% 삭감되면 다른 곳을 찾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4년 5월 27일자



참치의 건강 효능

하루 생선 100g 섭취로 모든 사망 위험 감소

참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소비되는 생선 중 하나이다. 참치 통조림은 저렴한 가격, 다용도성, 보관 용이성으로 미국에서 특히 인기가 높다.

참치는 단백질과 필수 비타민, 미네랄, 지방산을 제공하는 영양이 풍부한 식품이다. 참치를 섭취하면 포만감 제공부터 심장 건강 보호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건강에 도움을 준다.

단백질은 소화를 늦추고 포만감 유도 호르몬을 증가시켜 식후 포만감을 느끼게 한다. 연구에 따르면 참치와 같은 수산물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전체 열량 섭취량을 줄여 체중 감량을 촉진할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 따르면 수산물을 자주 섭취하면 닭고기나 소고기 같은 다른 단백질 공급원보다 칼로리 섭취를 9%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참치와 같은 고단백 식품을 섭취하면 체중 감량 중 근육량을 보존하여 건강한 신체 구성에 도달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참치는 단백질 함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탄수화물이 없어 키토제닉 다이어트와 같은 저탄수화물 및 초저탄수화물 다이어트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체중 감량에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참치에는 다른 식품에는 없는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수산물은 오메가-3 지방산인 에이코사펜타엔산(EPA)과 도코사헥사엔산(DHA)의 주요 식이 공급원이다. EPA와 DHA는 신경계 기능에 중요하며 체내에서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다.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가 풍부한 식단은 심장병, 대장암, 인지 기능 저하와 같은 일반적인 건강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참치는 또한 골격 건강, 면역 기능 등에 필수적인 지용성 영양소인 비타민 D의 좋은 공급원이다. 비타민 D는 많은 식품에 함유되어 있지 않으며 참치와 같은 수산물을 섭취하는 것은 비타민 D 섭취량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이다. 172g 참치 한 캔은 일일 비타민 D 필요량의 17%를 충족하므로 비타민의 수치를 높이는 데 좋은 선택이 된다.

참치 섭취 시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B6, B12, 셀레늄, 비타민 E, 마그네슘의 섭취량도 증가시킬 수 있다.

참치는 건강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다양한 영양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참치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탄수화물이 부족하여 당뇨병 전증 및 당뇨병 환자와 같이 혈당 조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선택이다.

일반적으로 수산물 섭취는 질병 위험 감소와 모든 사망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다. 2020년 34건의 메타분석을 검토한 결과, 하루 생선 섭취량이 100g으로 모든 사망 위험이 8%, 관상동맥 심장 질환 위험이 12%, 심장마비 위험이 2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산물을 자주 섭취하면 우울증과 간암의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치와 같은 수산물은 오메가-3 지방, 비타민 D, 셀레늄과 같은 항염증 및 항산화 영양소가 풍부하여 세포 손상을 줄이고 건강한 혈관 기능을 촉진하며 고혈압과 같은 위험 요인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질병 발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출처: Health, 2024년 5월 28일자



어획량 호조로 일렉스 오징어 시장 낙관론 가득

아르헨티나 약 13만톤 어획으로 지난해 대비 73% 증가

아르헨티나의 일렉스 오징어 시장이 2024년 조업 시즌이 진행되면서 어획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농축산수산부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올해 4개월 동안 약 12만 8,000톤이 어획되어 작년에 비해 어획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5만 4천 톤, 즉 73% 증가한 수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징어 조업을 방해하는 기상 이변과 수온 변화로 인해 어획량의 변동과 사이즈 감소가 보고되고 있다.

"그래도 여전히 낙관적이다. 부활절 기간 동안 수요가 꽤 많았고, 유럽 내 재고가 적어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국제 수산 박람회에서 한 아르헨티나 수산물 수출업자가 말하였다.

그에 따르면, 1kg당 약 1달러씩 가격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곧 바뀔 수 있다.

"8월 31일에 끝나는 여기가 아직 몇 달이나 남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하였다."라고 그는 말하였다.

중국인의 구매 감소, 미국 달러의 안정, 비용 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해 업계는 주목할 만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일상적인 운영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아르헨티나 오징어 채낚기 선주협회

(CAPA)의 회장은 말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2024년 어기를 긍정적으로 예상하며, 이미 연승어선과 트롤어선 모두 좋은 어획량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높은 어획률은 긍정적이다.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작년과 비교했을 때 순조로운 출발을 보여 안심하고 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그러나 가격과 관련해서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결론지었다. "중국은 구매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시장은 조용하다."

언터커런트는 아르헨티나의 수산업 부문이 2024년 1분기 동안 총 14만 7,357톤의 수산물을 전 세계로 수출하여 5억 1,350만 달러의 가치를 기록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지난해보다 물량은 14.1%, 금액은 9% 증가한 것으로, 주로 이 기간에 일렉스 오징어 수출이 크게 증가했으며 대구 판매도 증가했지만, 그 정도는 미미하였다.

이에 따라 일렉스 오징어 수출량은 7만 5,523톤, 1억 8,820만 달러로 2023년 같은 기간 어획량 5만 1,437톤보다 물량은 44.1% 증가하였다. 수출액 역시 지난해 1억 830만 달러에서 70.5% 증가하였다.

새우의 연평균 수출 가치도 1분기 kg당 2.49달러, 톤당 2,492달러로 18.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4년 5월 13일자



中 4월 하순 살오징어류 가격, 고가 지속

中 선단 적도상 홈볼트오징어 어획 저조 영향

중국 선단의 적도상 홈볼트오징어(아메리카 대왕오징어) 소형 어획량은 전월에 이어 저조한 수준을 기록 중이다.

무역회사 소식통에 따르면 4월 하순 시점 중국의 500g 이하 살오징어 1미 가격은 톤당 1만 8,000~1만 8,500 위안, 500g~1kg은 톤당 1만 6,000~1만 6,500위안, 1~2kg 1만 3,500~1만 4,000위안, 2~4kg 1만 2,500~1만 3,000위안이다. 모두 전월과 비슷한 수준의 고가를 유지 중이다. 소식통은 “채산성이 맞지 않아, 페루 쪽 공해로 어장을 옮기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남미에서는 페루의 홈볼트오징어 어업이 부침 없

이 유지 중이다. 칠레에서는 악천후가 출어 여부를 좌우하는 등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아르헨티나 EEZ 내 아르헨티나 일렉스 오징어 어업은 순조로웠다. 4월 23일까지의 어획량은 소식통에 따르면 전년도 동기 대비 많은 수준인 12만 1,439톤이었다. 포클랜드제도 주변에서 조업하는 대만 선단은 1미당 300~400g, 400~600g의 대형 크기를 중심으로 약 10만~12만 톤을 어획하였다.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에 따르면 1~3월 냉동 살오징어류(일렉스오징어, 홈볼트오징어 포함)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8% 감소한 1만 4,002톤이었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4년 5월 21일자

日 23년 오징어류 총공급량, 전년 대비 8% 감소

약 17만 톤…수입량 약 10만톤

일본 어업인 단체 JF전어련(이하, 전어련)에 따르면, 2023년 오징어류 총 공급량(국내생산, 수입, 전년도 이월 재고의 합계)은 전년 대비 8% 감소한 17만 180톤이다. 살오징어와 빨강오징어의 양륙량이 감소하였다. 수입량은 8% 감소한 10만 1,660톤이다.

오징어류의 일본 국내 생산량(신선·냉동 합계)은 26% 감소한 1만 8,520톤이다. 이 중 일본 국내 살오징어 생산량은 29% 감소한 1만 5,670톤에 그쳐, 지난 수년을 통틀어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 중 신선 제품은 22% 감소한 1만 3,860톤, 냉동

제품은 59% 감소한 1,810톤이다.

북태평양 빨강오징어 생산량은 2% 감소한 2,850톤을 기록하였다. 2022년에는 각 선박 모두 1항차 종료 후 목표를 살오징어로 전환하였으나, 2023년에는 살오징어 어획량이 부진한 가운데 빨강오징어 2항차에 출항하였다. 전어련 측은 “2023년은 1항차당 어획량이 적었다.”라고 언급하였다.

일본 총수요량은 8% 감소한 12만 5,180톤이다. 이 중 수출은 31% 감소한 1,300톤이고, 일본 국내 수요는 7% 감소한 12만 3,880톤이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4년 5월 23일자



日 2023년 냉동 살오징어류 수입량, 8% 감소

총 8만 9,908톤...단가 약 13% 상승

일본 재무성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냉동 살오징어류(아메리카대왕오징어, 일렉스오징어, 매오징어, 꼴뚜기 등 포함) 수입량은 전년 대비 8.2% 감소한 8만 9,908톤, kg당 평균 단가는 12.7% 상승한 593엔이다. 가공 원료로 사용할 오징어를 찾는 흐름이 가속화되는 것으로 관측된다.

전체 수입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산은 7.1% 감소한 4만 3,698톤이었다. 일본은 중국으로부터 적도상에서 조업하는 소형 아메리카대왕오징어 등을 수입하고 있다. 그 외에 남미 대왕오징어를 어획하는 페루로부터 6.6% 감소한 2만 2,180톤을, 칠레로부터 9,811톤을 수입하였다.

일렉스오징어를 어획하는 아르헨티나로부터는

41.6% 증가한 7,121톤을 수입하였다. 한편,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은 40.2% 감소한 1,534톤이었다. 최근 수량이 증가하였던 러시아로부터의 수입량은 80.1% 감소한 1,114톤을 기록하였다. 러시아는 살오징어 어획량 부진이 수입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관측된다.

2024년 1~3월 냉동 살오징어류 수입량 누계는 전년 동기 대비 8.4% 감소한 1만 4,002톤을 기록하였다. 국가별로는 중국산이 3.4% 증가한 9,049톤, 칠레산이 39.4% 증가한 596톤, 아르헨티나산이 3배로 증가한 1,293톤이다. 한편, 페루산은 35.6% 감소한 2,823톤이며, 러시아산은 수입이 없었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4년 5월 30일자

日, 1~3월 살오징어류 어획량 급감

신선 60% 감소, 냉동 8% 증가

일본 어업인 단체 JF전어련(이하 전어련)에 따르면, 1~3월 일본 국내 살오징어 어획량(신선·냉동 합계)은 전년 동기 대비 47% 감소한 743톤이다. 이 중 신선 제품은 60% 감소한 448톤이며, 냉동 제품은 8% 증가한 295톤이다.

3월 어획량 중 신선 제품은 전년 동월 대비 60% 감소한 177톤, 냉동 제품은 74% 감소한 53톤이었다. 신선·냉동 합계로는 65% 감소한 229톤이다. kg당 평균 단가는 신선 제품이 16% 상승한 834엔, 냉동 제품이 53% 상승한 1,923엔이 되었다.

3월 시점에서 살오징어 어업은 휴어기가 된다. 전어련 담당자는 산리쿠에서의 저인망 어업이 6월 말까지 이어 7~8월 금어 기간을 거쳐 9월부터 본격화한다고 말한다.

일본의 살오징어 어획량은 최근 감소세에 있다. 2016년 6만 4,000톤을 기록한 이후로 계속 줄어, 2021~2023년은 과거 최저를 계속 갱신하여 2023년에는 1만 5,664톤을 기록하였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4년 5월 23일자



페루, 2024년 대왕오징어 쿼터량 하향 조정 지난해 대비 14% 감축

페루 생산부는 2024년 대왕오징어(홍불트오징어)의 연간 어획 할당량을 전년 대비 14% 감소한 49만 9,683톤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지속된 어획 부진 끝에 내려진 것이다.

결의안은 페루 해양연구소(Imarpe)의 보고에 따라 생물학적, 어업 및 환경적 요인과 자원의 가용성에 따라 정해진 할당량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조업은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생산부는 할당량에 도달하거나 환경 또는 생물학적 상황 및 자원 보존의 이유로 해양연구소가 권장하는 경우 어업 활동을 중단할 수 있다. 생산부 장관은 “이러한 조치는 자원보존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책임감 있고 공평한 어업을 촉진하여 어촌 공동체의 경제적 안정을 조성한다”라고 말하였다.

남태평양지역수산물관리기구(이하, SPRFMO)에 등록되어 있고 길이가 15미터를 넘지 않는 페루 전통 어선은 SPRFMO 협약 수역에서 대왕오징어를 어획할 때 해양연구소에 어획 및 노력량 서류를 제출하

여야 한다.

지난달 바르셀로나 국제 수산 박람회에 참가한 공급업체들은 언더커런트 뉴스에 페루가 약 9~10개월 동안 대왕오징어 어획 저조가 지속하였다고 알렸다.

한 공급업체에 따르면 공해에서 중국 선박이 공급 가능한 물량을 어획하고 있다고 한다. 이 소식통은 중국, 대만 등 아시아 조업선의 조업이 페루의 생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였다.

반대로 또 다른 소식통은 페루의 대왕오징어 어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환경 조건을 지적하였다. 지난해 엘니뇨 현상은 해양 수온에 영향을 미쳐 페루 연안의 멸치와 대왕오징어 자원에 악영향을 제공하였다. 박람회에 참석한 몇몇 페루 소식통은 원자재 공급 부족으로 인해 시장 가격을 제시할 수 없었다고 말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4년 5월 30일자,
WeareAquaculture, 2024년 6월 3일자





페루 오징어, 북태평양 오징어 대체 원료로 주목 오징어채 제품의 훌륭한 원료로 사용

대왕 오징어라고도 알려진 페루 오징어(홍볼트오징어)는 중국의 주요 원양어업 어종으로, 주로 가공 원료로 사용되는 연중 조업 어종으로, 최대 무게는 200kg에 이른다.

최근 북태평양 오징어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오징어채 제품 생산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어 북태평양 오징어 원료를 대체할 수 있는 원료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산 오징어와 일본산 오징어는 가격이 비싸서 제외되었다. 멕시코 오징어를 원료로 생산한 오징어채는 북태평양 원료로 생산한 제품보다 맛이 약간 떨어지지만, 외관은 훨씬 나아 유통업자에게 크게 환영받고 있다. 또한 구매자 시장이 형성되면서 가격이 점차 상승하고 공급은 점차 감소하여 생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은 풍부한 자원과 저렴한 가격을 가진 페루 오징어로 향하였다. 페루 오징어는 어획량이 많아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오징어채 공장에서 머리를 포함한 다양한 부위의 오징어를 수입한다.

대왕 오징어는 일반적으로 랜턴 후크라는 어구를 사용하여 잡는다. 오징어잡이는 지름 15cm, 높이 20cm의 랜턴 후크에 오징어 내장을 넣고 약 8mm

두께의 밧줄을 묶는다. 이에 로프 끝을 묶기 위해 2.5mm 두께의 강철 와이어가 추가로 필요하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갈고리를 약 60m 깊이의 바다로 내릴 수 있으며 작업자는 도르래를 이용하여 오징어 어선으로 끌어 올릴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오징어의 목 부분은 상대적으로 절단되기 쉬우며 도르래와 낚싯줄이 90도 각도가 되면 어획 시 잘리기 쉽다. 힘이 너무 강하면 오징어 머리만 끌어 올릴 경우가 많다. 이때 오징어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려면 특별한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

북태평양과 동중국해의 오징어와 비교하면 품질이 좋지 않지만 잘게 썬 오징어나 말린 오징어 제품의 경우 페루 오징어는 훌륭한 원료이다.

남동 태평양 공해 남위도 어장에서 잡는 페루 오징어는 머리, 꼬리, 필름 등 일반적으로 세 부분으로 가공된다. 평년에는 대왕오징어 생산량이 페루 전체 오징어의 40%를 차지한다. 마리당 4kg 이상의 어획은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4kg 미만은 6월부터 10월까지 조업한다.

* 출처: Caharborfood.com, 2024년 3월 2일자



RFC, 새 CEO 선임 후 명태 가공 생산 대폭 증가 러 국내 시장 구축 및 해외 시장 다변화

세계 최대 명태 생산업체 중 하나인 러시아 피셔리 컴퍼니(이하, RFC)가 성공적인 명태 시즌을 맞아 새 CEO를 선임했다고 발표하였다.

이 회사는 5월 14일 현 CEO인 올가 나우모바가 6월 초에 물러난다고 발표하였다. 나우모바는 이사회에서 계속 활동할 예정이며, 후임으로는 전략 및 상업 담당 이사였던 사블리 카르푸킨이 선임될 예정이다.

"지난 2년 동안 강력한 팀을 구성하고, 높은 운영 성과를 달성하고, 새로운 선단을 출항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에서 올바른 솔루션을 찾아낸 올가의 리더십에 감사한다."라고 RFC 이사회 의장 예브게니 오를로프는 발표자료에서 말하였다.

나우모바는 회사의 설립자이자 소유주인 글렙 프랭크가 미국이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한 후 회사 지분을 매각하기 몇 달 전인 2022년 1월에 최고경영자 자리에 올랐다.

RFC는 나우모바가 재임하는 동안 주요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핵심 전문가를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러시아 조선소에서 건조된 신규 슈퍼 트롤선의 운송 속도를 높였다고 밝혔다.

나우모바는 "RFC는 의심할 여지 없는 업계의 리

더이며, 효과적이고 결과 중심의 팀을 구성하는 데 성공하였다."라고 말하였다. "우리는 어민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고품질 생산을 위해 생산 공정을 최적화하였으며, 선박의 기술 장비 등 공급망을 개선하였다. 저는 RFC가 모든 도전을 극복하고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나우모바는 또한 회사의 명태 어획량 증가를 감독하였다. 이 회사는 블라디미르 리마노프, 캡틴 브도비첸코, 메카닉 마슬락, 메카닉 시조프 등 자사의 슈퍼트롤어선 4척이 러시아 명태 시즌에 어획량 기준으로 러시아에서 상위 10위권 어선에 포함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 회사는 또한 고차 가공 제품 생산도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이 회사는 명태 필렛 생산량을 2023년에 비해 14% 증가한 1만 5,300톤으로 늘렸다. 2024년 현재까지 RFC는 2023년에 비해 66% 증가한 1만 9,500톤의 연육을 생산하였으며, 연육 생산량도 크게 증가하였다.

나우모바는 "2024년 시즌 A에서 RFC의 리더십은 새로운 ST-192 선박의 효율성과 능력을 분명히 입증한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RFC는 더 많은 연육 제품 생산에 주력해 왔으며 계획된 10척의 슈퍼 트롤선 중 첫 번째 선박이 건조



된 후 2021년에 추가된 제품 유형을 처음 선보였다. 이 회사는 필렛과 연육의 러시아 국내 시장 공급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공급량은 2023년에 비해 46%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국내 공급 증가는 러시아가 해외 제재와 제품 수출 금지로 인해 수출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발생하였다. 미국의 러시아산 수산물 수입 금지 확대는 미미한 영향을 미쳤지만, 유럽연합의 지속적인

제재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RFC는 명태 축제를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명태 소비를 촉진하는 등 국내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의 필렛과 연육 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며 최근 베트남에 명태를 처음 선적했다고 덧붙였다.

* 출처: SeafoodSource, 2024년 5월 14일자

러 연육 생산량, 2027년 10만 톤 예상

인도의 연육 생산량 증가 등 예상

일본 가공기업 도카이전분(東海澱粉)의 칸노 요시하루 과장은 5월 24일 동 기업이 도쿄에서 개최한 전시회에서 강연하며, 향후 주요 각국의 연육 생산량 전망을 제시하였다.

발표에 따르면, 새로운 명태 연육 생산지인 러시아는 약 4만 톤인 생산량이 3년 후인 2027년에는 약 2~3배인 10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 4위 생산국인 인도의 연육 생산량은 11만 톤에서 14% 증가한 12만 5,000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칸노 과장은 강연에서 동 기업이 주력하는 연육 4개 산지를 예시로 제시하였다. 이 중 최대 생산지인 미국은 풍부하고 안정적인 자원의 명태 연

육이 지속가능한 것에 더하여, 생산자의 품질 의식이 높은 점이 이점이라고 강조하였다.

칸노 과장은 세계 2위 연육 생산지인 베트남과 4위인 인도를 소개하면서, 이 두 국가에서 사용하는 원어의 어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연중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러시아의 경우,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연육 생산이 시작되어 현재는 신설 해상가공선 9척이 조업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2027년에는 15척까지 증가하면서 2024년에는 생산량이 7~8만 톤, 2027년에는 10만 톤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4년 5월 25일자



러시아 수출 관세, 2025년부터 폐지

러시아 정부, 하원에 법안 제출

러시아 매체 'Fishnews'가 6월 4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하원에 세제 개정 법안을 제출하였다. 해당 안에는 2023년 10월부터 도입된 수출관세를 2025년 1월 1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국내 시장을 보호할 목적으로, 러시아는 2023년 9월 21일자 행정명령 제1538호로 수출관세 제도를 도입하였다. 달러와 루블화 환율에 따라 세율을 결정하는 조치로, 루블화 약세로 인하여 수출 증가가 예상될 때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하는 구조이다.

구체적으로는 1달러가 95루블 이상일 경우 세율 7%, 90루블 이상 95루블 미만일 경우 5.5%, 85루

블 이상 90루블 미만일 경우 4.5%, 80루블 이상 85루블 미만일 경우 4%의 관세를 부과한다. 80루블 미만의 경우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환율은 과세 대상 달의 전전월 26일부터 전월 25일까지의 평균치로, 정부가 세율을 결정한다.

수출 관세는 HS코드 제3류나 제16류의 수산물·수산 가공품이 모두 과세 대상이다. 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세율은 10월과 11월이 7%, 12월과 2024년 1월이 5.5%, 2월이 4.5%, 3~6월은 5.5%이다. 이 조치는 2024년 말까지 계속된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4년 6월 5일자

러 어업, 비용 상승으로 재무 악화

제품 가격상승 이상으로 비용 커져

러시아 어업선주협회는 최근 어업의 제품 가격 인상이 비용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재무 상황이 악화 중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부터 2023년까지 냉동 어류, 필렛, 민스의 러시아 국내 평균 가격은 40.6% 상승하였다. 반면, 생산 비용은 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생산 비용 내역을 살펴보면, 원재료비 상승 비중이 41%로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하였고, 인건비 25%, 연료비 19%, 감가상각비 10%, 수선비 5%가 그 뒤를 이었다. 해마다 모든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

동 협회는 어업·가공업의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업단체와 마찬가지로 세금 부담 경감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수출관세 철폐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4년 5월 25일자



대구 가격 압력으로 공급망에서 러시아산 감축 의존도 및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필요

영국 최대 소매업체 테스코는 대서양 대구와 같은 주요 어종에 대한 상당한 가격 압박으로 인해 자체 냉동 공급망에서 러시아산 생선을 제외하고 있다.

테스코는 이미 2022년에 냉장 카테고리를 러시아산 생선에서 제외했지만 2024년 말까지 모든 제품에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구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지만 수요가 줄어들지 않아 멈출 기미가 없다. 이에 공급량도 줄어들고 있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노르웨이 H&G 대구 가격은 19주 차에 톤당 7,000달러에 달하였다.

명태의 경우, 미국산 H&G 생선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러시아산도 상승세를 보인다.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국제수산물엑스포에서 미국산 25cm 이상 H&G 명태의 경우 몇 주 전 톤당 1,500달러에서 1,800~1,900달러가 논의되었다. 러시아산은 톤당 1,050달러로 점진적으로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사상 최저 수준이다.

한 소식통은 "미국산 명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필요도 있다."라고 말하였다. 러시아산 생선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시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테스코는 영국 소비자들에게 덜 익숙한 다른 어종을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러시아산 대량 물량을 대체하려면 여러 어종을 조합해야 하여 불가능 확률이 높다.

중국산 명태는 거의 전량 러시아산 원료를 사용한다.

언더커런트는 무역 포털을 통해 영국이 중국에서 가공된 러시아산 흰살 생선과 연어를 4만 톤을 수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말, EU는 2024년 1월 1일부터 러시아산 대구를 자율 관세 할당량(이하, ATQ) 제도에서 제외하였다. ATQ는 자유무역협정이 없는 국가로부터 가공용 원료를 0%의 관세로 EU에 반입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Tesco의 계획대로 러시아산 냉동 생선을 멀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최근 몇 달 동안 유럽 대륙에 기반을 둔 몇몇 대형 가공업체에서 잘 드러났다.

트라이던트 씨푸드는 러시아산 명태 구매를 중단했다가 재개한다고 발표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4년 5월 9일자



유럽, 미국 명태의 비상 재고 구축

러시아산에 대한 더 많은 제재 대비, 미국 명태 수요 증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2년 동안 구매자들이 러시아산 원자재에 대한 더 많은 제재 가능성에 대한 비상 계획을 세우면서 유럽에서 미국 명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가공업자들은 저렴한 단일 냉동 필렛과 러시아산 H&G 명태를 사용하는 중국산 이중 냉동 필렛을 사용하지 않고는 계약을 따낼 수 없다고 클라우센(세계 제의 수산기업 넷스이 자사)은 말했다.

미국산 PBO 필렛 블록의 시준 가격은 유럽 냉장창고에서 톤당 3,400~3,600달러 범위에서 결정되었다. 그러나 러시아 PBO의 관세 미지급 가격은 톤당 약 2,700달러이다.

러시아산 H&G 기준 중국산 이중 냉동 필렛은 유럽 CFR 기준 톤당 약 2,300~\$2,400달러이다.

러시아산 H&G 명태의 CFR 중국 가격은 톤당 약 1,040달러로, 2017년 명태 가격 폭락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관세가 추가되면 러시아 PBO 필렛은 톤당 3,000달러, 중국은 2,700달러가 된다.

2024년 첫 두 달 동안 독일은 전년 대비 347% 증가한 7,712톤의 미국산 명태 필렛을 수입하였으며, 이는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많은 양이다.

러시아 명태를 사용하지 않고는 독일에서 피쉬 핑거 계약을 따낼 수 없다. 소매업체는 가격에만 관심이 있다. 결국 알디 수드, 알디 노르, 리들 등 독일 대형 소매업체들은 여전히 러시아산을 사용하고 있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4년 5월 23일자

EU 명태 수입량, 2024년 1월 급감

러시아산 ATQ 제외 여파...미국 필렛 수입량 여전히 적어

알래스카주 의원들은 5월 초, 알래스카 수산업이 직면한 "경제적 위기" 해결책 마련을 목표로 하는 태스크포스 구성 법안을 승인하였다.

‘알래스카 수산물 산업을 평가하는 공동 입법 태스크포스 설립(약칭, SCR 10)’으로 알려진 알래스카주 의회 결의안은 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되었고, 5월 12일 하원에서 1표의 무효표를 제외하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해당 태스크포스는 알래스카의 수산물 부문에 타격을 주고 있는 도매 가격의 폭락 등에 대한 단기적인 권장 사항을 찾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해결책을 개발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태스크포스 구성원들은 2025년 1월 21일까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입법부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 2월에 해산된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4년 5월 14일자



日 포럼서 북미 최대급 연육 선상 가공선 소개

신조선 및 세계 연육 동향 등 설명

미국 알래스카 등의 냉동 연육을 취급하는 일본 수산 가공 기업 도카이전분(東海澱粉)이 북미 공급업체인 악틱스툼(Arctic Storm)社를 초청하여 연육 포럼을 개최하였다.

악틱스툼은 보유 선박의 노후화로 인하여 신조선 뉴 피요르드호를 건조, 기존에 보유한 2척의 선박인 '스툼'호와 '피요르드'호의 기능을 집약시켰다. 2023년 9월에 시애틀의 조선소로부터 인도받아, 헤이크 시험 조업으로 가동을 시작하여, 2024년 명태 A시즌부터 본격적으로 조업을 개시하였다.

뉴 피요르드호는 전장 99.3미터이며, 냉동 용량이 2,200톤으로 구 피요르드호의 2배 이상이다. 연육 가공 시설의 경우, 구 피요르드호는 3라인이었으나 뉴 피요르드호는 7라인으로 증강하며 세계 최대 규

모의 연육 가공선으로 자리 잡았다. 최신티 가공 기기를 갖춰 다양한 제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되었다.

도카이전분 담당자는 "인산염 무첨가나 당의 농도 등 세세한 설정이 가능하므로, 특별 주문 사양의 연육도 대응하여 제조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가공 시설은 선별부터 생산, 팔레타이징, 라벨 작업, 냉동고 입고 등 모든 작업 과정에 로봇 등을 사용한 자동화가 도입되었다. 엔진은 영국 롤스로이스 제로, 최대 선속 24노트로 구 피요르드호보다 빠르고, 효율성 높은 조업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배의 연료 소비를 기존 선박 2척에 비하여 40% 감축하였고, 냉동고의 촉매를 암모니아가 아닌 이산화탄소(CO2)로 채용하는 등 환경 측면도 고려하였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4년 5월 30일자

日 닛스이社, '마시는 속근 단백질' 제품 출시

명태 단백질 분말 형태로 섭취하는 제품

일본 수산·가공 대기업 닛스이가 '속근 단백질'을 물이나 우유에 녹여서 섭취할 수 있는 분말 형태의 제품인 '매일 아침 단백질(毎朝たんぱく) 코코아 맛/바나나맛'을 출시하였다.

단백질이 부족하기 쉬운 아침 식사나 공복시 간식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분말로 가공한 명태의 속근 단백질을 1일당 4.5g 섭취할 수 있

도록 하였고, 또한 대두단백·칼슘·비타민C·식이 섬유·유산균 등의 영양성분을 배합하고 있다.

속근이란 수축을 담당하여 순간적으로 큰 힘을 낼 수 있게 하는 근육으로, 노화가 진행될수록 빠르게 퇴화한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4년 5월 10일자



러시아, “건강하고 맛 좋은 명태” 홍보

리테일 워크에서 1,000인분 이상의 명태 요리 제공

러시아 소비 시장의 주요 행사인 러시아 리테일 워크가 5월 27일 모스크바에서 개막하였다. 기념 포럼의 일환으로 명태어업협회(이하, ADM)는 러시아 소매업체 대표들에게 극동 명태 푸드트럭을 선보일 예정이다. 포럼이 열리는 모든 기간 참가자는 러시아의 주요 상업 자원인 명태 요리를 무료로 맛볼 수 있다.

"작년에 ADM은 러시아 최초로 생선 브랜드인 '극동 명태'를 홍보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목표는 러시아에서 명태 소비를 늘리는 것이다. 진열대와 식당 메뉴에서 명태의 입지를 넓히는 등 소비자에게 명태를 대중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와 관련, 소매업체 대표들과 협력하는 것은 이 프로그램의 중요한 영역이다.

러시아 소매 주간의 하나로 사람들은 명태가 건강할 뿐만 아니라 매우 맛있는 생선인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가장 현대적인 어획 및 가공 방법을 통하여 제품의 높은 품질이 보장된다. 저렴한 가격과 함께 극동 명태를 구매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현명한 선택이 되고 있으며, 이는 소매 체인과 온라인 플랫폼에서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유망한 방향임을

의미한다."라고 ADM 협회장은 말하였다.

푸드트럭은 HoReCa와 소매 부문에 수산물을 공급하는 Seafoodline이 운영한다. 메뉴는 유명 블로거이자 셰프가 개발하였다. 여기에는 여러 종류의 샌드위치, 명태가 들어간 수산물 박스, 극동 피시 앤 칩스 등 네 가지 메뉴가 포함되었다. 극동 명태 푸드 코트는 이렇게 여름 시즌을 시작하며, 모스크바 지역의 공개 행사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극동 명태 브랜드 발표는 2023년 9월 29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 수산 포럼에서 진행되었다. 소비자를 위한 브랜드 마케팅 프로그램은 기업 웹 사이트와 소셜 네트워크 및 대규모 디지털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조금 더 일찍 시작되었다. 또한 작년에는 유명 블로거와 40개의 홍보자료와 명태어업 및 가공에 관한 미니 시리즈를 제작하였다. 캠페인이 진행된 4개월 동안 약 5천만 명의 사람들이 극동 명태에 대해 알게 되었다. 올해 이 프로그램의 주요 초점은 연방 및 지역 규모의 대중 및 산업 행사로의 통합에 맞춰져 있다.

* 출처: Fishery.ru, 2024년 5월 28일자



알래스카 명태 가격 변동, 아직 여전히 낮아 러시아산 명태의 가격 차이로 인해 미국 생산자 피해 발생

알래스카산 명태가 예년보다 낮은 가격으로 세계 시장에 유통되고 있어 미국 생산자들은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알래스카 베링해에서 명태 조업선을 운영하는 한 경영자는 IntraFish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상황에 대해 "모두가 불평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제품을 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말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뿐이다."

미국 생산자들에 따르면 러시아는 최근 몇 년 동안 값싼 연어와 명태를 세계 시장에 쏟아부어 수십 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최저가로 끌어내리고 있다. 올해 발효된 미국 정부의 러시아산 명태 및 기타 주요 어종의 중국을 통한 미국 시장 진입 금지 조치는 러시아의 아시아 시장 진출을 가속하여 일본 등 주요 시장에서의 미국산 명태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제공하였다.

EU의 명태 소식통은 4월 현재, 2024년 "A" 시즌 미국산 명태 블록의 평균 가격은 3,400달러(3,186유로)에서 3,600달러(3,374유로) 사이라고 IntraFish에 전하였다.

이는 불과 2년 전 핀본아웃(이하, PBO) 필렛 블록 가격이 사상 최고치인 5,000달러(4,543유로)를 넘어섰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큰 차이다.

러시아산과 미국산 명태의 가격 차이도 미국 생산자들에게 타격을 주고 있다.

미국에 본사를 둔 트라이던트 시푸드의 대표는 최근 러시아산 명태가 원가보다 낮은 1,000달러(924유로)에 판매되면서 회사의 유럽 자회사인 피켄팩이 러시아산 생선을 구매하는 것이 "생존을 위한 경제적 필요성"이 되었다고 말하였다.

미국의 "A" 시즌 명태 조업이 완료됨에 따라 연육 생산량은 약 12.3% 감소하고 PBO 생산량은 18.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즌이 끝나면서 딥스킨 생산량도 감소하고 있다. 이 제품 형태는 주로 미국 내수 시장에 진출하며 미국 킥서비스 레스토랑에서 사용된다.

명태 경영진은 지난해 국내 수요를 맞추기 위해 딥스킨 제품의 생산량이 "과잉"이었던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생산량 감소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올해 맥도날드와 같은 패스트푸드 체인점(딥스킨 명태 사용)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맥도날드는 최근 높은 메뉴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이유로 수익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피쉬 스틱, 피쉬 핑거, 빵가루를 입힌 필렛을 만드는 데 주로 사용되는 PBO 명태 블록은 미국 국내뿐



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 공급되고 있다.

알래스카 베링해의 "A" 시즌은 6월 9일에 공식적으로 종료되며, "B" 시즌은 6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알래스카산 명태가 세계 시장에서 러시아산 명태와 경쟁하면서 시장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5월 21일의 명태 생산자협회(이하, GAPP)의 자료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양인 14만 1,927톤의 중국산 냉동 명태 필레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된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러시아로부터의

직접 수입량은 6만 9,544톤으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12월에는 유럽 이사회가 지난해 러시아와 벨라루스 수산물에 자율 관세 할당량(ATQ) 제도에서 제외함에 따라 유럽연합으로의 러시아산 수입이 1만 7,816톤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에서는 2023년까지 중국산 냉동 명태 필렛이 전년 대비 25% 증가한 1만 9,244톤으로 시장을 장악할 것으로 GAPP은 분석하였다.

* 출처: Intrafish, 2024년 5월 30일자

러시아 조업선, 러시아산 모니터링 장비로 변경

선박 출력 55kW, 총톤수 80톤 이상 선박 의무 사용

러시아 조업선의 모니터링 장비인 Inmarsat의 사용은 2026년까지 허용된다. 오늘날 선박의 약 40%가 이 장비만 장착하고 있어 선박은 이에 대한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중앙모니터링센터는 말하였다.

러시아 농업부는 선박 기술 제어 장비를 장착하는 새로운 절차를 승인하였다.

출력이 55kW 이상, 총톤수 80톤 이상인 연안 및 산업 조업선은 VMS 장비를 의무적으로 장착하여야 한다. 모니터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Gonets 혹은 Inmarsat 장비와 자동 식별 시스템 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고 중앙모니터링 센터는 재확인하였다.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러시아의 Gonets 시스템과 AIS만 사용할 수 있다. 위성 그룹 야말과 익스프레스를 통하여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의 절반 이상에 고네츠가 설치되었다고 중앙모니터링센터 언론 서비스는 피쉬뉴스에 전하였다.

현재 일부 선박은 Gonets와 Inmarsat 장비를 동시에 장착하여 조업하고 있으나 러시아 국내 장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모니터링센터는 알렸다.

* 출처: Fishery.ru, 2024년 6월 5일자



꽂치, 어획량 저조로 일본 소비 감소

가격상승 등으로 미소비 가정 증가

일본이 어획량과 소비 부진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꽂치가 일본 식탁에서 사라지고 있다.

꽂치 어획량은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장기적인 침체에 빠져 있으며, 그나마 잡히는 꽂치도 살코기가 적고 가격이 비싼 경우가 많다.

일본의 꽂치 어획량은 2022년에 약 1만 8,000톤으로 감소하여 4년 연속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후 작년에는 약 2만 5,000톤으로 소폭 회복하였다.

일본의 꽂치 조업은 보통 7월 이후에 시작되지만, 중국과 대만의 어선들이 6월경부터 공해에서 조업하는 경우가 많아 일본과 가까운 해역으로 들어오는 꽂치 어획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어획량 감소는 소비 감소로 이어졌다. 일본 내무성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가정에서 구입한 꽂치 양은 평균 235g으로, 꽂치가 풍성했던 2009년의 약 10% 수준이다.

도매업자에 따르면 지난해 도쿄 도요스 수산시장

에서 거래된 꽂치의 무게가 주로 마리당 100g 내외였기 때문에 일본 가정이 2023년에 꽂치를 두 마리 정도만 구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꽂치가 많이 잡히던 시절에는 소매점에서 한 마리당 100엔 미만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었기 때문에 꽂치를 사서 질릴 때까지 먹는 팬들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어획량이 불안정해지면서 꽂치를 구매할 기회가 줄어들었고, 도쿄의 소매점에서는 제철인 가을에도 200~300엔 정도에 판매하고 있다. 일 년 내내 구할 수 있는 해동 꽂치의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도요스 시장의 한 상인은 "작년에는 꽂치를 먹지 않았다"라고 말하였다.

작년 가을 도요스 시장에서는 160g 이상의 큰 꽂치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냉동 꽂치조차도 크기가 더 작고 양도 적다. 한 시장 종사자는 "크고 지방이 많은 꽂치가 늘어나길 바란다"라고 말하였다.

* 출처: The Japan times, 2024년 5월 25일자



꽂치 조업 현황

꽂치조업선 10년 내 34% 증가 및 대부분 봉수망 어법 사용

아열대에서 온대 해역에 널리 분포하는 꽂치 (Cololabis saira)는 북태평양 공해에서 중국의 가장 중요한 상업 어종 중 하나이며 2015년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에서 중점 관리 어종으로 지정하였다. 이 어종을 조업하는 주요 국가 및 지역은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바누아투, 대만 등이다. 지난 20년 동안 어선 수는 389척에서 523척으로 증가했으며, 이 중 98% 이상의 어선이 봉수망을 어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봉수망은 주로 플로트 폴, 그물, 강철 로프, 낚 싱 커로 구성된다. 이 중 플로트 폴은 아래에서 그물을 지지하고 어구를 수면에 떠 있게 하여 어구 배치를 쉽게 한다. 플로트 폴은 유리섬유와 대나무로 구성되며, 선박 크기에 따라 사양이 결정된다. 공해 꽂치 조업선의 경우, 일반적으로 플로트 폴의 길이는 약 40m이며 지름이 약 400mm인 4~6m 크기의 여러

부분으로 구성된다. 전통적인 봉수망 어업 과정은 어군 탐지, 그물 설치, 어군 집어, 그물 올리기, 어군 흡입의 5가지 주요 단계로 구성된다.

그물 세팅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그물을 설치한다. 봉수망이 물속으로 내려 가면 플로트 폴이 수면에 떠 있고, 그물은 싱커의 무게로 인해 아래로 처진다. 바람과 해류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플로트 폴과 어선은 서로 분리된다. 바람, 해류, 선박의 움직임에 의존하는 이 수동적인 그물 운용 방식은 풍속과 해류의 영향을 상당히 받는다. 이에 따라 어구를 빠르게 펼치기 어렵고 그물이 선박과 얽히어 조업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플로트 폴에 동력 장치를 장착하면 그물 설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 출처: Ocean Engineering, 2024년 5월 29일자





원양어업, 과거와 현재 간 통계 주요 내용

척당 생산량 증가, 평균 선박 톤수 증가율의 두 배 이상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2022년 기준 총톤수는 13만 7,051톤으로 204척으로 나누었을 때 척당 평균 톤수는 672톤이다. 이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최고 총톤수를 기록한 1990년(42만 2,144톤)과 비교할 때 67%가 감소하였으나 810척으로 나누었을 때 평균 톤수는 521톤으로 선박의 평균 톤수는 28% 증가하며 척당 선박 규모는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전체 어선 6만 4,385척 중 원양어선은 총 204척으로 0.3%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전체 선원 3만 1,867명 중 원양선원은 총 1,157명으로 3.6%를 차지한다.

통계로 정리된 가장 오랜 자료인 1999년 기준 선원 월평균 임금은 258만 8천원이다. 최고 평균 임금 업종은 오징어채낚기어업으로 357만 9천원이었으며, 최저 평균 임금 업종은 통발어업으로 163만 7천원이었다.

원양어선원의 2022년 월평균 임금은 934만 7천원(261% 증가)으로 최고 평균 임금을 제공하는 참치선망어업의 경우 1,431만 9천원(449% 증가)이었으며, 최저 평균 임금을 제공하는 봉수망어업의 경우 524만 1천원(56% 증가)이었다.

1990년 생산량은 92만 5,331톤, 어선 척수 810척으로 선박당 평균 생산량은 1,142톤이었다. 2022년 생산량은 39만 9,778톤, 총 척수 204척으로 척당 1,960톤을 생산하면서 72%의 척당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수출량은 1990년 21만 9,907톤(5억 1,688만 달러)이나 2022년 15만 3,857톤(3억 9,988만 달러)으로, 물량 기준 30% 감소하였다.

1990년 참치 연승어업에서 눈다랑어의 평균 어가는 톤당 6,300달러였으나, 2022년 9,027달러로 43% 상승하였으며, 황다랑어는 3,600달러에서 8,007달러로 122% 상승하였다.

1991년 5통기준 kg당 800원이던 냉동 명태는 2022년 1,437원으로 80% 상승하였다.

1992년 kg당 697원이던 남서대서양수역 오징어는 2022년 4,951원으로 610% 상승하였다.

1992년 L사이즈기준 1,230원이던 꽂치는 2022년 6,132원으로 399% 상승하였다.

* 출처: 원양어업통계 1990~2000년 7월, 2023 원양산업 통계연보, 2023년 10월 20일자, 2023 수산해양환경 통계, 2023년 12월 31일자



한국 2024년 1분기 수산물 수입 동향

수입액 14.3% 감소, 수출액 4.3% 감소

'24년 1~3월간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액은 러시아, 베트남, 노르웨이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14.3% 감소(14.3억 달러)하였고, 수출액도 4.3% 감소(7.1억 달러)하면서 무역수지 적자는 22.2% 축소된 7.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명태, 고등어, 오징어 등의 수입량 감소로 지난해 대비 9.2% 감소한 36.5만톤을 수입하였다.

명태 수입량은 6만톤으로 러시아 수입량 감소로 지난해보다 5.9% 감소하였다. 명태 수입량의 77.2%는 냉동 원물이었고, 냉동 연육은 9.5%, 냉동 필렛은 9.4%를 차지하였으며, 국가별로 러시아가 82.2%, 미국이 12.1%를 차지하였다.

대구 수입량은 3천 8백 톤으로 러시아 수입량 감소로 지난해보다 46.1% 감소하였다. 주요 공급국인 러시아의 조업이 크게 부진하면서 전체적인 대구 수입량이 감소한 가운데, 중국산 신선 및 냉장 대구 수입은 149% 증가한 761톤을 수입하였다. 대구 수입량의 71.3%는 냉동 원물이었고, 신선·냉장품

20.1%, 냉동 필렛이 7.7% 차지하였으며, 국가별로 러시아가 62.3%, 중국, 21.8%, 미국이 15.0%를 차지하였다.

참다랑어의 수입량은 7백 톤으로 지난해 대비 79.4% 감소하였다. 참다랑어 수입 감소는 국내 소비 위축 등에 기인하였으며, 참다랑어 수입량의 71.5%는 냉동 필렛, 냉동 대서양 참다랑어 14.4%, 냉동 남방참다랑어 6.2%를 차지하였으며, 국가별로 스페인 31.0%, 이탈리아 25.3%, 프랑스 12.0% 순이었다.

오징어 수입량은 3만톤으로 페루 수입량 감소로 지난해보다 14.1% 감소하였다. 페루산 오징어 생산 부진으로 중국산, 칠레산의 수입이 증가하였다. 오징어 수입량의 68.6%는 냉동품이었으며, 조미·자숙 오징어는 30.3%를 차지하였다. 국가별로 수입 비중은 중국 52.3%, 페루 25.2%, 칠레 1.9%를 차지하였다.

* 출처: KMI 수산물 수입 동향 2024년 4월 30일자





러 저연승 어업 “쿼터 강제 박탈, 심각한 위협”

어획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신속한 규제 변화 필요

쿼터 소진 70% 기준에 대한 입법 기준의 동결 또는 폐지가 올해 저연승협회의 주요 업무 방향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러시아 저연승 협회장(전 연방수산청 부청장)은 말하였다.

할당량 계약의 강제 취소에 대한 수생 생물 자원 사용자의 청구는 오랫동안 고려되었다. 사법 관행에 따르면 쿼터 이용률이 제로가 아니면 어민들은 규제 기관을 상대로 법정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2년 연속 할당량의 70% 미만을 사용한 사용자에게 대한 허가권 박탈을 규정하고 있는 어업법에 포함된 문구에 있다. 이는 규제 기관이 공식적으로 종료 절차를 시작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협회장은 말하였다.

결과적으로 어민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소

송 절차를 거쳐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한다.

"우리 협회는 몇 년 동안 규제 당국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상황의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우리는 이 규제의 동결 또는 폐지를 제안한다. 또는 2019년까지와 같이 50%의 쿼터 소진을 지표로 돌아가는 중간 옵션도 있다."

협회장에 따르면 이 규제는 오랫동안 기초가 되었으며 오랫동안 70% 소진 규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불필요해졌다. 70% 소진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 또한 고의로 미소진한 것이 아니라, 어획량 부진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 출처: Fishnet, 2024년 5월 20일자

러, 국가 전략적 중요성에 따라 어업생산량 증가

러, 60년 전 국가 어업 생산 위원회 설립

60년 전인 1964년 5월 15일, 소련 국가 수산 위원회는 소련 국가 경제 위원회 산하의 연방공화당 수산 국가 생산 위원회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의 "어업 관리 개선"을 목표로 하였다. 생산 위원회는 1965년 10월에 소련 수산부로 전환되었다. 이는 국가의 경제와 식량 안보에 대한 어업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거의 40년(1940~1950년, 1954~1979년) 동

안 수산부의 수장은 알렉산더 이쉬코프였다. 국가 생산위원회와 부처가 창설된 후 산업의 지위가 상승하면서 어업 생산량은 크게 증가하였다.

1965년부터 1975년까지 10년 동안 소련의 수생 생물자원 어획량은 570만 톤에서 1,030만 톤으로 1.8배 증가하였으며 러시아 어업 역사에서 최고의 생산량으로 기록되어 있다.

* 출처: Fishery.ru, 2024년 5월 18일자



서아프리카의 어족 자원 감소의 원인

불법 중국 트롤 어선, 기후 변화, 영세 장인 어업이 원인

하버드 대학교의 로버트 팔버그에 따르면, 서아프리카 연안의 전통 어촌의 평균 어획량은 지난 30년 동안 크게 감소하였다.

코트디부아르에서 나이지리아까지 이어지는 기니만을 따라 어부들은 해변에서 나무 카누를 띄워 정어리, 멸치 같은 작은 원양 어류를 잡아 비공식 지역에서 판매하며 생계를 유지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이러한 어업이 유지되었지만 1990년대 이후 어획량 감소로 생계가 위태로워졌다.

가나에서는 어업 노력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1993년과 2019년 사이에 소형 원양 어류의 총어획량이 59% 감소하였다. 인기 어종인 밴댕이류의 어획량은 1992년 11만 9,000톤에서 2019년에는 1만 1,834톤으로 감소하였다.

코트디부아르도 2003년과 2020년 사이에 어획량이 거의 40% 감소하는 등 비슷한 어획량 감소가 발생하였다.

어획량의 지속적인 감소는 지역의 가장 가난한 가정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가나에는 20만 명 이상의 어부가 있으며, 해안 시장에서 생선을 가공하고 판매하는 수천 명의 여성을 포함하여 가치 사슬에 속한 200만 명 이상의 다른 사람들도 현재 위협에 처

해 있다. 이미 국제 빈곤선(1인당 하루 2.15달러) 이하로 생활하고 있는 이 지역 사회는 이제 더 큰 소득 손실에 직면해 있다.

하버드대의 팔버그는 기니만의 연안 어업 위기는 기후 변화, 중국의 불법 어업, 너무 많은 영세 어부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기후 변화의 위협 중 해양 온난화의 위기는 덜 위험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이는 온실가스에 의해 갇힌 추가 열의 약 90%가 바다에서 흡수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더 심각한 기후 위협으로 이어지게 된다.

바닷물이 따뜻해지면 바닷물의 산소가 감소하여 모든 해양 생물이 위협을 받게 되며 어류의 이동을 유발하여 어업에 의존하는 지역 사회에 큰 위협을 제공한다.

물고기는 냉혈동물로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찬 바다를 찾아 떠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기니만의 적도 해류 온난화가 어획량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가나, 코트디부아르, 나이지리아의 최대 어획량은 해양 온난화 제로 시나리오에



비해 금세기 중반까지 50%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 발표된 또 다른 연구에서도 이러한 전망이 어느 정도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어업이 잘 관리되더라도 기후 변화만으로도 2050년까지 기니의 최대 어획량은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어획량 감소의 두 번째 이유는 중국의 트롤 어선이 그 이유이다.

가나,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와 같은 국가에서는 외국 트롤 어선이 영해에서 배타적경제수역까지의 조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가나 기업으로 위장하여 현재 가나에서 허가된 저인망 어선의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중국 어선들은 불법 어업 활동을 통하여 어린 물고기를 잡는 등 어족 자원을 훼손하고 있다.

중국 트롤 어선들은 가나에서 불법 조업으로 때때로 벌금을 부과받지만, 일부는 벌금을 내지 않고 허가를 잃지도 않았다. 생산된 어획량 대부분은 수출되어 가나의 국가 식량 공급에도 기여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서아프리카 영세 어업자들은 어족자원 감소 원인으로 중국 트롤 어선을 지목하지만, 카

누 어업 활동의 증가도 똑같이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다.

현재 서아프리카에는 1950년에 비해 7배나 많은 수의 카누가 원양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오늘날의 카누는 더 큰 그물과 더 많은 선원을 갖추고 있으며, 강력한 선외 모터가 장착된 카누가 많다.

이 지역의 영세 어선의 확장은 급속한 인구 증가와 빈곤한 농업을 피해 해안으로 이주하는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힘입어 촉진되었다.

1960년부터 2023년까지 가나,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의 주요 해안 도시는 최소 7배(아크라), 최대 30배(아비장)의 인구 증가를 경험하였다. 해안의 인구 증가는 생선 소비에 대한 상업적 수요를 증가시키는 동시에 생선을 잡고, 가공하고, 판매하는 데 필요한 추가 노동력을 제공한다.

최근 어획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카누의 수는 계속 증가하여 1990년 가나에는 8,000척의 카누가 있었고 2017년에는 1만 3,650척이 있었다.

어족자원감소로 생계를 위협받는 어촌 지역 사회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 출처: Fishretail, 2024년 5월 17일자



밀레니얼 세대, 미국 수산물 소비 47% 차지

연령과 소득에 따라 수산물 소비량과 상관 관계 발생

미국 수산물 시장에 대한 새로운 연구는 유연하고 건강한 식습관으로 전환한 밀레니얼 세대의 행동이 수산물 시장에 미친 영향을 보여준다.

미국 인구의 1/3을 차지하는 1981년에서 1996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는 현재 가정식 수산물 시장의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Spheric Consumer가 발표한 '미국 수산물 소비자 심리 보고서 2024'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는 미국 수산물 시장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적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는 집에서 수산물을 준비하려는 의지가 더 높았지만, 이전 세대는 새우 플래터나 연어 스테이크와 같은 요리를 레스토랑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pheric Consumer는 밀레니얼 세대를 '수산물 슈퍼 소비자'라고 부르는데, 이는 이들이 이전 세대보다 생선을 더 많이 먹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Spheric Consumer의 파트너인 조지 크로커는 수산물 업계가 젊은 소비자의 특정 취향과 요구 사항을 수용할 수 있다면, 이들 세대는 노년까지 동물 단백질에 비해 수산물을 더 많이 소비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Z세대는 또한 직장에 진입하면서 밀레니얼 세대와 같은 수산물 섭취 습관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크로커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도 반드시 이전 세

대의 습관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며, 이전 세대의 습관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라고 말한다. "업계가 젊은 소비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대응한다면, 그들이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은 수산물을 소비할 뿐만 아니라 현재보다 더 많이 소비할 수도 있다."

Spheric Consumer는 미국 시장의 규모를 계산하기 위해 몇 가지 데이터 포인트를 사용한다. 사용하는 변수 중 하나는 1인당 가정에서 소비하는 평균 수산물 식사량을 계산하는 설문조사 질문이다. 여기서 밀레니얼 세대는 1년에 평균 39회, Z세대는 32회, X세대는 26회, 베이비붐 세대 이상은 19회를 섭취하여 세대 간 비교에서 우위를 보였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많은 국가가 생활비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소득이 중요한 것은 분명하다. 연령과 소득에 따라 시장을 세분화했을 때, Spheric Consumer는 수산물 소비가 가장 낮은 그룹이 소득이 가장 낮은 노년층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 그룹을 지표로 삼으면 소득이 고소득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의 수산물 소비량이 3배 이상 높다. 비슷한 기준으로 봐도 저소득 밀레니얼 세대는 저소득 베이비붐 세대보다 수산물을 거의 두 배나 더 많이 섭취한다.

이 연구는 수산물 수요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소득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특히, 수산물 업계는 생활



비 위기가 미국 시장을 장악하면서 2023년 힘든 시기를 견뎌내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 모두 향후 20년 동안 미국 경제에서 사상 최대의 부의 이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Spheric Consumer가 이 그룹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는 '수산물 슈퍼 소비자'라는 슬로건에 힘을 실어준다.

이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는 소비자의 태도와 신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 결과, 젊은 소비자들이 수산물 요리에 대해 더 큰 자신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트렌드의 핵심에는 건강과 지구에 도움이 되는 단백질을 선택하는 유연주의의 가치가 있다. 하지만 밀레니얼 세대는 매장 선호도도 다르다.

27세에서 42세 사이의 밀레니얼 세대는 생선을 통째로 먹기보다는 껍질째 포장된 초밥 트레이와 개별 포장된 수산물을 더 선호한다. 이들은 정교한 요리를 준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매장에 들어갔을 때 무엇을 구매할지 대부분 알고 있다.

이 보고서는 수산물 업계가 젊은 소비자들의 수산물에 대한 인기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결론지었다. Z세대 응답자의 1/3이 남획과 해양 상태에 대해 우려를 표했지만, 베이비붐 세대 이상은 8%에 불과하였다.

양식업 관행에 대한 우려는 Z세대의 경우 47%로 증가했지만, 베이비붐 세대 이상은 30%에 그쳤다. 두 그룹 모두 소고기 산업이 단백질 중 환경에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지만, 젊은 소비자들은 수산물이 닭 양식보다 더 나은지 확신하지 못하였다.

Spheric Consumer는 1인당 연간 9.7파운드의 신선 및 냉동 수산물을 가정에서 소비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 수치는 소비자가 집에서 수산물을 먹는 횟수 등 전국 설문조사에서 얻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미국 해양대기청(NOAA)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삼각 측량 기반으로 계산한 결과이다.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 1/4이 팬데믹 이후 수산물 소비를 늘렸다고 답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4년 5월 23일자

원양산업 정보 및 광고 접수 안내

더욱 알차고 참신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원양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나 각종 원고를 접수합니다. 또한 원양산업지에 광고(B5 규격, 컬러 및 흑백)를 희망하시는 경우 아래 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유료). 송부해 주시는 내용은 검토 후 원양산업지를 알차게 꾸미는 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 소: 서울 서초구 논현로 83, 6층(양재동, 삼호물산A빌딩)
한국원양산업협회 기획홍보부(우편번호: 06775)
- 팩스: 02-589-1630/1631 ○ 메일: kosfa@kosfa.org



日 2023년 어업·양식 생산량, 역대 최저치

1951년 이후 처음으로 400만 톤 미만 기록

일본의 2023년 어업·양식 생산량은 372만 4,300만 톤으로 2022년 대비 4.9% 감소하였다. 연간 생산량 400만 톤 미만을 기록한 것은 1951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초이다. 해면어업의 어획량 상위 어종은 정어리와 꽂치를 제외하고 감소하였다. 특히 고등어류, 가다랑어, 명태의 감소 폭은 20% 전후를 기록하였다.

〈해면어업〉

해면어업은 전년 대비 4.3% 감소한 282만 3,400 톤이다. 어획량이 많은 상위 5개 어종은 정어리가 6.1% 증가한 68만 900톤이었으나, 고등어류는 18.3% 감소한 26만 1,100톤, 가다랑어는 20% 감소한 15만 2,600톤, 가리비가 2.8% 감소한 33만 600톤이었다. 명태는 23.4% 감소한 12만 2,900톤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해면양식업〉

해면양식업은 6.9% 감소한 총 84만 9,000톤이다. 그중 어류 양식은 2.6% 증가한 24만 3,600톤으로, 방어류가 8% 증가한 12만 3,000톤(그중 방어가 11% 증가한 9만 4,300톤, 잭방어가 전년 수준인 2만 4,400톤), 참돔이 0.1% 감소한 6만 8,000톤이었다. 조개류는 29만 8,000톤으로 11.9% 감소했으며, 굴류가 11.7% 감소한 14만 6,300톤, 가리비가

12.1% 감소한 15만 1,300톤이었다. 해조류는 29만 8,000톤으로 8.1% 감소했으며, 그중 김류는 13.5% 감소한 20만 1,100톤, 미역류는 5.8% 증가한 4만 9,600톤이었다.

〈내수면어업〉

내수면어업은 4.6% 감소한 2만 1,565톤이다. 연어송어류가 17.1% 감소한 8,207톤, 재첩이 10.8% 증가한 9,211톤, 은어가 4.6% 감소한 1,695톤이었다.

〈내수면 양식업〉

내수면 양식업은 3.8% 감소한 3만 299톤이다. 뱀장어가 4.6% 감소한 1만 8,294톤, 송어류는 4.2% 증가한 6,802톤, 은어는 8% 감소한 3,387톤, 잉어는 14.8% 감소한 1,727톤이었다. 이 밖에 관상어의 잉어는 257만 6,576마리가 판매되어 전년보다 6% 증가했다.

이번 공표치는 일본 이시카와현이 노토반도 지진의 영향으로 집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시카와현 생산량이 포함된 확정치는 2025년 2월에 공표될 예정이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4년 6월 4일자



인생은 바다와 같아

알렉산더 블록

인생은 바다처럼 항상 폭풍으로 가득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폭풍이 배를 던집니다.

어두운 밤이 내려오면 불안한 마음으로 배를 조종하십시오.

구원의 닻을 찾으세요 -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밤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면,

닻 없이 망망대해에서 방황한다면,

아무 생각 없이 차가운 바다에 몸을 던지세요.

배가 가라앉으면 파도가 당신을 데려갈 것입니다!

Жизнь — как море она — всегда исполнена бури...

Александр Блок

Жизнь — как море она — всегда исполнена бури.

Зорко смотри, человек: буря бросает корабль.

Если спустится мрачная ночь — управляй им тревожно.

Якорь спасенья ищи — якорь спасенья найдешь...

Если же ты, человек, не видишь конца этой ночи.

Если без якоря ты в море блуждаешь глухом,

Ну, без мысли тогда бросайся в холодное море!

Пусть потонет корабль — вынесут волны тебя!





5월 오징어 국내 동향

생산량 160% 증가, 수입량 12% 증가

□ **생산동향**(5월 오징어 생산량, 원양산 반입 크게 늘며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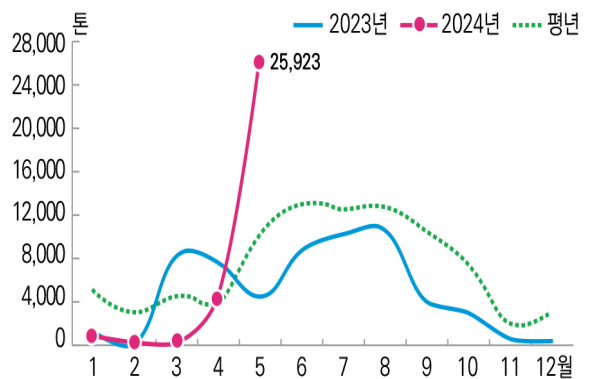
5월 오징어 생산량은 2만 5,923톤으로 원양산 반입이 늘며 전월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전년 및 평년에 비해서도 각각 160.4%, 450.7% 많았다.

연근해산 오징어 생산량은 625톤으로 일부 업종의 금어기 해제와 함께, 동해 남부해역을 중심으로 어장이 형성되면서 전월 대비 증가하였다.

원양산 반입량은 전월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2만 5,298톤으로 2015년 6월(5만 1,218톤) 이후 월간 기준 최대 반입량을 기록했으며, 전년 및 평년보다도 각각 594.2%, 181.4% 많았다.

5월까지 원양산 오징어 누적 생산량은 5만 8,938톤으로, 2월 이후 원활한 조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생산물량은 순차적으로 국내에 공급됨에 따라, 오징어 수급 불안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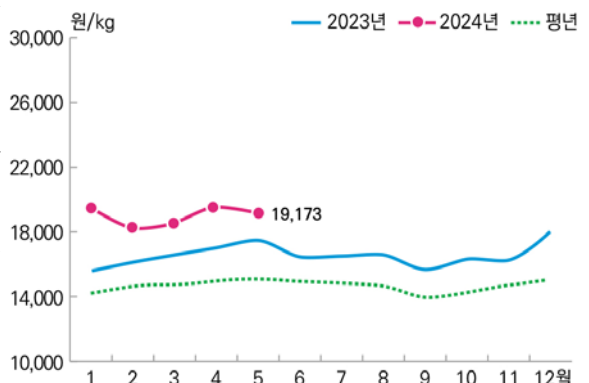
□ **가격동향**(5월 냉동오징어 소비자가격, kg당 19,173원으로 전월 대비 하락)

5월에는 연근해산 공급이 적어 오징어(신선냉장) 가격이 형성되지 않았다.

오징어(냉동) 도매가격은 kg당 15,280원으로 원양산 반입 증가로 냉동품 공급이 늘며 전월 대비 2.2% 하락하였으나,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35.9%, 45.3% 높았다.

오징어(냉동) 소비자가격은 kg당 19,173원으로 정부 비축물량 방출과 대형소매점 할인행사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1.4% 하락하였다.

한편, 지속된 연근해산 어황 부진으로 낮은 재고 수준이 이어지면서, 전년 및 평년보다는 각각 8.9%, 27.0% 높았다.





□ 수출입동향(5월 오징어 수입량, 전월 대비 증가)

5월 오징어 수출량은 1,184톤으로 전월 대비 27.2% 감소하였으며, 전년 및 평년보다도 각각 43.8%, 7.0% 적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562톤)과 미국(363톤)으로 수출된 물량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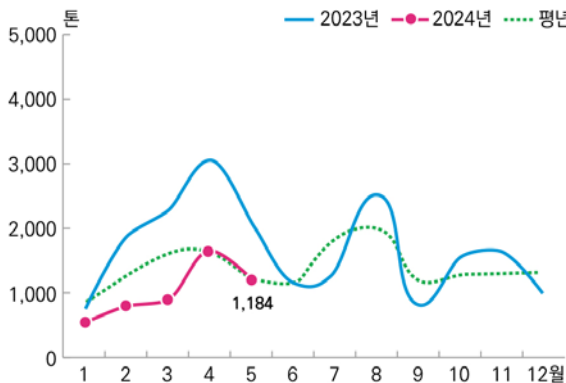
제품 형태별로는 냉동 오징어(302톤), 기타(조제 및 저장처리) 오징어(139톤), 조미 오징어(73톤) 등의 순이었다.

5월 오징어 수입량은 2만 1,170톤으로 전월 대비 11.6% 증가했으나,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30.2%, 8.4%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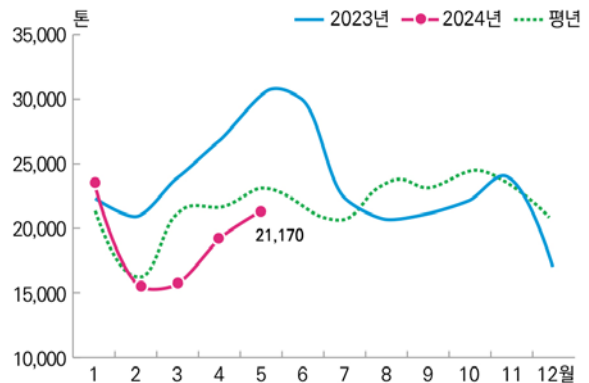
국가별로는 중국산이 1만 576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페루(5,244톤), 칠레(1,920톤), 아르헨티나(1,408톤) 등의 순이었다.

제품 형태별로는 냉동 오징어(9,936톤), 기타(조제 및 저장처리) 오징어(7,513톤), 조미 오징어(2,873톤), 건조 오징어(836톤) 등의 순이었다.

〈 오징어 수출량 추이 〉



〈 오징어 수입량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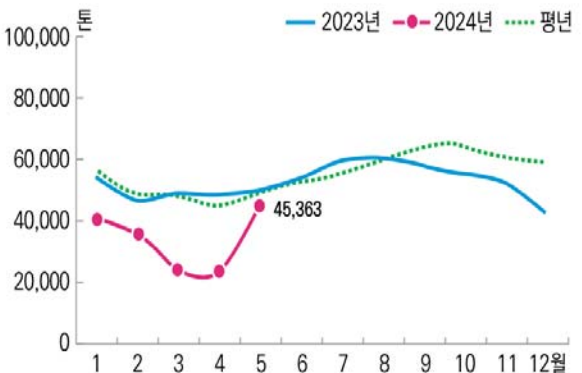
□ 재고동향(5월 오징어 재고량, 전월 대비 증가)

5월 말 오징어 재고량은 4만 5,363톤으로 전월 대비 93.1% 증가하였다.

이는 공급 확대를 통한 가격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원양산 반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전년 및 평년보다는 각각 9.8%, 8.7% 적었다.

6월에도 원양산 반입은 원활할 것으로 보여 재고량 증가세가 예상된다.



* 출처: KMI 수산물측 6월호



5월 명태 국내 동향

전월 대비 수입량 51% 감소, 소비자가격 8% 상승

□ 생산동향(입어 준비)

원양명태 트롤조업선은 부산항에서 조업지로 이동하기 위한 제반 사항이 준비 및 조치 되었으며, 생산은 이뤄지지 않았다. 2023년 어기 어획물 반입은 2023년 12월 24일 종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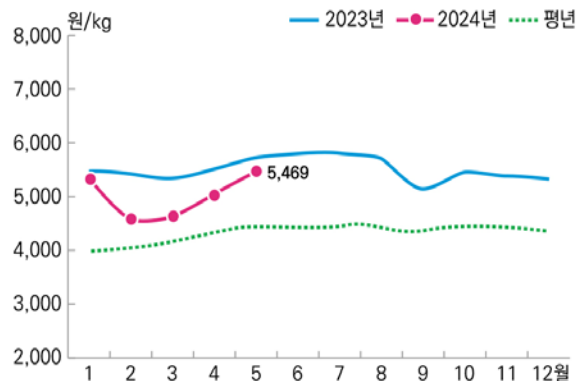
□ 가격동향(5월 명태(냉동) 소비자가격, 전월 대비 8% 상승한 kg당 5,469원)

5월 명태(냉동) 도매가격은 전월과 비슷한 kg당 2,369원으로 평년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러-우' 사태로 평년에 비해 높은 가격 수준을 보였던 전년 동월보다는 7.4% 낮았다.

명태(냉동) 소비자가격은 대형소매점 할인을 변동 등으로 전월 대비 8.3% 상승한 kg당 5,469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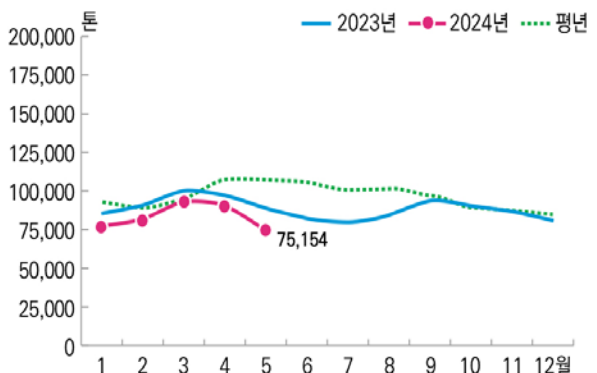
평년에 비해서도 23.5% 높았으나, 전년 동월보다는 4.5% 낮았다.



□ 재고동향(5월 재고량, 전월 대비 감소)

5월 말 기준 명태 재고량은 수입 감소 영향으로 전월 대비 17.8% 줄어든 7만 5,154톤이었다.

전년 및 평년보다는 각각 15.1%, 28.9% 적었다.





□ 수출입동향(5월 명태 수입량, 전월 대비 51% 감소한 1만 3,540톤)

5월 명태 수출량은 전월 대비 21.4% 감소한 2,897톤으로 전년 및 평년에 비해서도 각각 28.8%, 58.1%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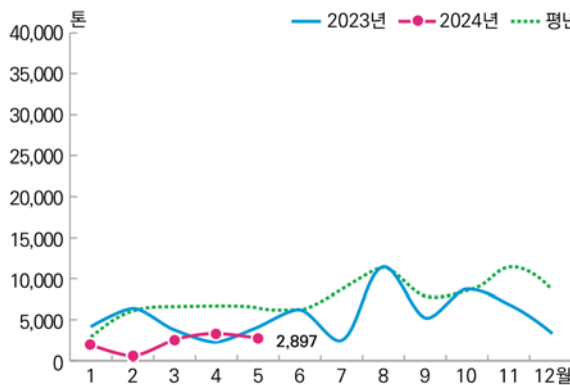
국가 및 제품 형태별로는 냉동제품의 경우 중국 2,349톤, 베트남 154톤 등이 수출되었으며, 냉동연육은 태국 163톤, 베트남 24톤 등이 거래되었다.

명태 수입량은 주요 어장의 조업 감소 및 미국의 금수 조치에 따른 재수출 물량 감소 등으로 전월 대비 50.7% 적은 1만 3,540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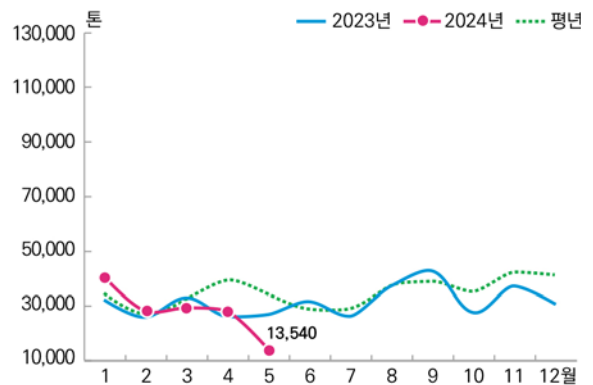
전년 및 평년에 비해서도 각각 48.3%, 59.1% 적은 양이었다.

러시아산 냉동필렛이 4,234톤으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산 냉동제품 3,060톤, 미국산 냉동연육 2,192톤 등이 수입되었다.

〈 명태 수출량 추이 〉



〈 명태 수입량 추이 〉



* 출처: KMI 수산물측 6월호



제1회 선원의 날 기념식, 6.21 개최

“새로운 시작, 우리의 위대한 항해” 표제

해양수산부는 ‘제1회 선원의 날’을 앞두고 6월 15일(토)부터 21일(금)까지를 선원주간으로 정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연계행사를 개최한다.

매년 6월 셋째 주 금요일인 ‘선원의 날’은 국민에게 선원의 중요성을 알리고 선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지정된 국가 기념일로, 올해 6월 21일이 첫 기념일이다.

‘제1회 선원의 날’ 기념행사는 국립한국해양대학교에서 진행되며, 행사 당일 한국해양대학교 내에 9,000톤급 실습선인 ‘한나라호’를 일반 국민들에게

개방하여 선원들의 일상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6월 15일 ‘제1회 선원의 날 한마음 걷기 축제’를 시작으로 선원들의 삶을 담은 특집다큐 방영(EBS), 제1회 선원 페스티벌(6. 19.)과 산·학 중심의 선원 세미나(6. 20.)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선원주간에 진행될 예정이다.

선원의 날 및 선원주간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행사 공식 누리집(www.kosweek.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소통단, 수산물 안전관리 점검

수산물 냉동보관창고, 수산물 방사능분석실, 원산지 단속 현장 점검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이하 소통단)이 5월 23일(목) 부산에서 직접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확한 수산물 안전 관련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평소 수산물 먹거리에 관심 많은 주부, 영양사, 대학생, 직장인 등 일반 국민 40명을 소통단으로 위촉하였다.

소통단은 첫 현장 일정으로 사조씨푸드에서 운영하는 수산물 냉동보관창고를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에 사용할 시료도 함께 채취할 계획이다.

이어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하여 수산물 방사능 분석 검사 과정을 참관하며, 원산지표시 관리 전담팀과 수산물 판매 현장에서 원산지표시 이행 점검 활동도 함께 할 예정이다.

[특한 국 원 양 산 업 협 회 연 락 처]

임 원 실	성 명	전화번호	비 고
협 회 장	김영규 회 장	589-1600	
해외협력본부장	신현애 상 무	589-1602	해외협력본부
경영지원본부장	이성재 이 사	589-1603	경영지원본부
비 서	조한솔 대 리	589-1601/1621	비서, 출납

구 분	성 명	전화번호	담 당	구 분	성 명	전화번호	담 당
경 영 지 원 본 부	기 획 흥 보 부	이성재 이 사	589-1603	해 외 협 력 본 부	해 외 협 력 1 부	신현애 상 무	589-1602
		김효상 과 장	589-1609			최봉준 과 장	589-1613
		조성주 과 장	589-1608			백상진 주 임	589-1614
		김민재 주 임	589-1622			-	589-1620
	회 원 지 원 부	소기동 부 장	589-1610		해 외 협 력 2 부	진호정 부 장	589-1616
		김영수 과 장	589-1611			최상진 주 임	589-1617
		최은혁 주 임	589-1619			이승환 사 원	589-1618
	총 무 부	공길웅 과 장	589-1605	경 영 지 원 본 부	부 산 지 부	이형균 이 사	051-253-3388
		조성환 과 장	589-1606			김현애 과 장	
		이인수 사 원	589-1607	공 인 계 량 소		이동주 팀 장	051-253-3391
						최광준 팀 장	

해외수산물협력센터	센터장	이상목 센터장	044-868-7360	총괄	해외수산물협력센터	국제협상팀	양재걸 전문관	044-868-7364	국제(수산)기구
	기획운영팀	이석우 팀장	044-868-7834	행정 총괄, 기획			김수민 전문관	044-868-7863	국제(수산)기구
		김단비 행정관	044-868-7837	예산, 인사, 명예수산물관					
	해외진출팀	이은 행정관	044-868-7836	ODA, 해외투자교육			이승은 전문관	044-868-7831	국제(수산)기구
		신승호 행정관	044-868-7838	통계, OFIS			-	044-868-7833	국제(수산)기구

☐ 팩스: (서울) 02-589-1630/1, (부산) 051-253-3392, (세종) 044-868-7840 ◆ 홈페이지: www.kosfa.org

명예해양수산관	세 네 갈	김점봉 수산관	221-33-853-0850 senegalkim@gmail.com
	피 지	김종태 수산관	679-330-7188 ckpfj@naver.com
	인도네시아	박상천 수산관	62-21-2287-4165 scpark@top-bridge.com
	사 모 아	오시영 수산관	1684-258-9900 syoh_2@hotmail.com
	뉴질랜드	윤정환 수산관	64-3-344-1617 seajho@xtra.co.nz
	모리셔스	이동춘 수산관	230-217-1700 kmarinelee@gmail.com
	아르헨티나	이상우 수산관	54-223-495-0712 kargeexport@gmail.com
	가 나	이윤홍 수산관	233-303-200995 skshipafrica@yahoo.com
파푸아뉴기니	정승화 수산관	675-321-8137 jc651016@gmail.com	

원양산업 제1170호	발 행	2024년 6월 15일
	등 록 일 자	1981년 8월 27일
	등 록 번 호	서울라-9183호
	발 행 처	특수 법인 한국원양산업협회
발 행 인 편 집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6층 (양재동, 삼호물산A빌딩)	
	김 영 규	

당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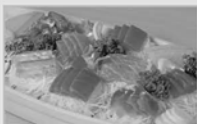


건강한 주부는 원양산 생선을 좋아해~

【원양산과 수입산 구별 요령】 원양산은 원산지 표시를 「원양산」 또는 「원양산(해역명)」으로 표시하므로 '원양산' 표기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사례 : 원양산 또는 원양산(대서양))

통조림용 참치조림 장면

원양생선은 우리나라 어선이 잡는 즉시 선상에서 위생적으로 냉동처리하기 때문에 수입수산물과는 달리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적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참 치 회

DHA, EPA, 셀레늄이 풍부



참치통조림

심장병 등 성인병 예방



오징어

피로회복 성분,
타우린 다량 함유



명 태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



소기류(민어과)

저수용 생선으로 저칼



꽁 치

불포화지방산 다량 함유

원양산 생선을 수입산과 동격 취급 마세요!



● 원양산 생선이 수입산보다 왜 좋을까?

01

내국물품 (우리 어선이 잡은 생선)

원양산은 우리나라 어선이 외국 원양 수역이나 해외 공해상에서 잡아 직접 국내로 들어오는 생선이기 때문에 연근해산과 마찬가지로 내국 물품에 해당한다. 반면 수입산은 외국물품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02

오염우려 없는 친환경 생선

원양산은 대부분 청정해역이나 오염이 되지 않은 대양에서 안전한 위생 기준(HACCP)에 의해 생산되어 식품안전성이 수입산과 달리 뛰어납니다.



03

선상급랭 시설을 통한 우수한 신선도 관리

우리나라 원양어선들은 선상급랭 시설이 매우 우수해 어획 즉시 선상에서 곧바로 급랭하여 국내로 반입되기 때문에 수입산에 비해 신선도가 훨씬 뛰어납니다.



다양한 해외수산투자 정보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OFIS)에서 확인하세요

www.ofis.or.kr



해외진출 정보!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국가별 수산업 정보 제공

110개국 수산업 국가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국내외 최신정보 제공

국내외 기사 및 자료를 분석하여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 국내외 원양산업 관련 뉴스
- (원양산업 동향) 매월 생산량, 어가 동향 등 원양산업 현황 정보
- (국제수산기구 동향) 국제 수산 이슈 및 국제 회의 동향

원양산업 주요국가 최신정보 제공

9개국 명예해양수산물(연안국 현지 교민)이 주요 수산업 동향, 어가, 유가 등 생생한 정보 제공

요청자료가 있을 시 문의해 주시면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업 경험 및 진출기회 공유

진출 업체 전문가 및 학계 전문가 특별기교로 전문가 소개 및 진출기회를 제공합니다.

정부지원사업 정보 제공

업체 투자 희망국 전문가가 초청, 조사, 융자 등 진출을 지원합니다.

- 해외에 수산부품(양식, 가공, 유통) 투자 시 사업자금 융자
- 전문가 초청 교육 수요조사 및 일정
- 투자 희망국 수요조사 및 일정



최신 정보가 메일로 쏙! 쏙! E-Newletter 받아보세요!

아래 기관메일로 E-Newletter를 신청하시면
매월 최신 정보를 보내드립니다.



한국원양산업협회
해외수산협력센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53 에스빌딩 6층
Tel 044-868-7836 기관메일 survey@kofci.org